

청년생활

9

1964

흥남 비료 공장 류안 직장 청년들은 설비의 점검 보수 작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설비들을 개조하고 포화기의 대당 능력을 높임으로써 류안 비료 하루 생산량을 종전보다 1.4 배로 높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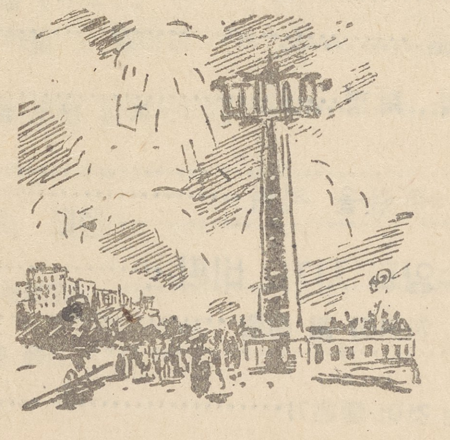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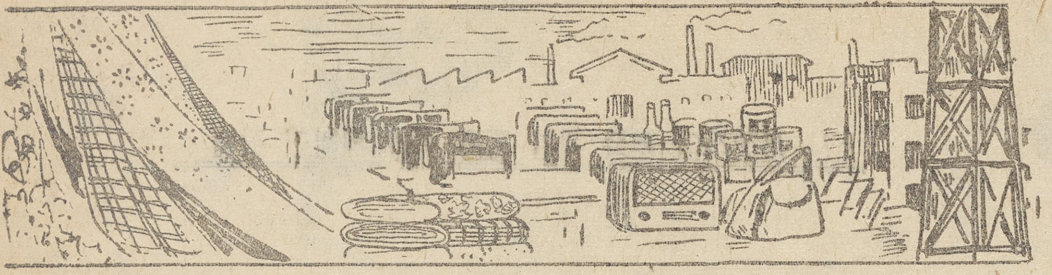
금년에 60만 톤의 세멘트를 생산할 목표밑에 로의 점검 작업을 잘 하고 있는 해주 세멘트 공장 소성 직장 청년들.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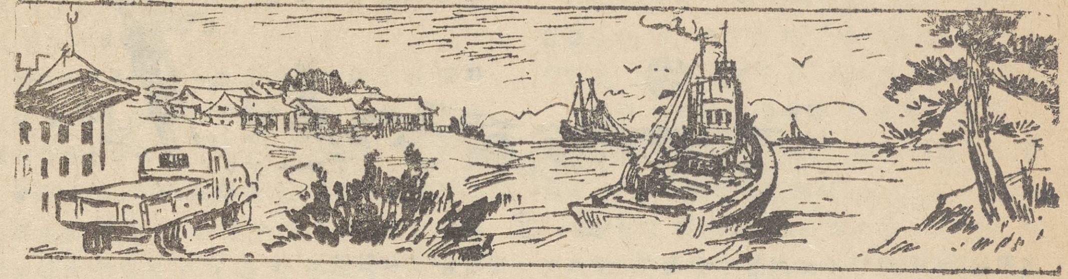
청년생활



1964. 9



차 례



표지 1 면; 젊은 지질 탐사 대원들

나의 조국



최 창 학

봄이면 백화 만발하고 여름이면 록음 짙고 가을이면 단풍 물드는 수려한 내 조국의 산천, 산천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려니와 이 땅에 자원은 그 얼마나 무진장한가!

또한 가는 곳마다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덕성과 슬기를 말해 주는 전설과 유적이 있고 력사에는 우리 인민의 용맹과 창조의 업적이 빛나고 있다.

참말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 찬란한 애국 전통과 문화 전통을 쌓아 올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이요, 용감하고 지혜로운 우리 인민이다.

허나 이 땅 우의 그 모든 재부와 인민의 슬기가 일제 강도들의 야만적 통치 하에서는 빛을 내지 못 했다.

이 땅 우의 그 모든 것이 밝은 태양의 빛을 받으며 다시 소생하고 참다운 성장의 길을 밟기 시작한 것은 우리 인민이 당의 령도 밑에 자기의 주권을 수립한 때로부터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은 세기를 두고 암흑 속에서 광명을 향해 걸어 온 우리 인민의 운명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창건, 그것은 백두의 밀림 속에서 조국 광복의 강령을 펼쳐 드신 김 일성 동지의 위대한 구상의 실현이다.

빛나는 혁명 전통에 뿌리를 박고 공화국이 창건된 그 날부터 우리 인민은 오각별 빛나는 조국의 기’발을 창공 높이 날리며 당과 수령이 밝혀 주는 광명한 대로를 따라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여 있는 미래를 향해 발’걸음 소리 높이 힘 있게 전진하였다.

우리의 전진 도상엔 암초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미제는 전쟁의 불을 지르고 우리 조국 강산을 불태웠다.

그러나 원쑤들의 그 어떠한 발악도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고 력사의 운명을 틀어 쥔 우리의 장엄한 전진을 막을 수 없었다. 그 어떠한 암초도, 시련도 격랑을 일으키며 도도히 흘러 넘은 대해, 당이 가리키는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우리 인민의 행군을 막지는 못 했다.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든 우리의 조국, 오늘의 우리 조국 강토를 살펴보자!

어디서나 묻혀 있던 지하의 보물이 땅 우에 솟아 난다. 번영하는 조국 땅 우에 철의 산악, 행복의 석탄산이 솟아 오른다.

우리의 원료와 기술을 가지고 우리 인민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척척 만들고 있다.

일제 때는 낫과 호미 밖에 못 벼리던 기양에선 이 아침도 뜨락또르 군단이 공장 문을 나서고, 평덕선의 철’길 우로는 자동차를 가득 실은 화물차들이 긴 고동을 울리며 승리산 기슭을 떠난다. 우리의 공업은 부속이 18만 종이나 되는 전기 기관차를 펑펑 만들어 낸다.

세계 1 등급의 비날론 공장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장비로 건설해 놓은 지가 어제 같은데 오늘은 또 여기 압록강반에 대화학 섬유 공장을 일며 세웠다.

어찌 공업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으랴, 농촌에서도 천지 개벽이 이루어졌다.

연연 수만리 관개의 그물은 온 나라를 뒤덮었다. 관개 수로가 산마루로 치달아 오르고 기계화의 군단이 호미와 보습을 대신하는 우리의 농업은 억년 흉풍을 모른다. 우리 인민은 의식주에 대한 근심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 래일의 희망을 힘차게 노래하며 살게 되였다.

조선의 붉은 과학자들은 인류 초창기 이래 처음으로 경락의 실태를 발견하여 세계 생물학의 발전에 새로운 기원을 열어 놓았고 우리의 예술은 《황금의 예술》로 세계의 찬탄을 불러 일으키였다.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품에서 우리 청춘들의 삶은 또한 얼마나 행복한가!

송곳 하나 꽂을 조각 땅도 없는 머슴’군의 자식으로 태여 난 안 달수 동무도, 삼수 갑산 화전민의 아들로 태여 난 박 봉조 동무도 로력 영웅으로 국사를 의논하는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되였으며, 빈농의 딸로 태여 난 김 봉애 동무는 인민 배우로 되였다. 막로동’군으로 일하던 청년이 학사가 되여 대학에서 후대들을 가르치는 세상, 실로 이 땅 우에 사는 우리 청춘들 모두가 새 생활 속에서 꽃핀 자기 성장의 새 력사를 가지고 있다.

조국의 품’속에서 청년들의 희망과 재능, 그 모든 것이 망울지고 꽃핀다.

어릴적부터 앉은뱅이가 되여 일본에서 다섯 번이나 수술을 받고도 고치지 못 한 채 귀국한 리 부자라는 처녀는 천리마 함흥 의학 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조국의 대지를 마음껏 활보한다. 조국의 은혜로움, 조국의 고마움에 대해 눈물 머금고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

보시라! 어머니 조국의 품’속에서 우리 청춘들은 그 어느 때에도 누리지 못 한 크나 큰 행복을 누린다, 새 생활을 노래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배우는 살기 좋은 우리 나라, 강력한 자립 경제의 나라, 노래와 웃음으로 가득찬 우리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참으로 좋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눈부신 빛을 온 세상에 뿌리며 동방에 거연히 서 있다.

세계의 수 많은 벗들이 우리의 성과와 업적을 함께 기뻐하고 있다.

《…나는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조선이 응당 모범으로 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인도네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아이디트 동지는 이렇게 말했다.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은 세상에 부럼 없는 그런 나라로 되였다.

그러니 우리 어찌 이러한 조국을 자랑하지 않겠는가, 이 조국에 태여 난 기쁨, 이 조국의 주인된 긍지와 영예를 느끼지 않겠는가!

이렇듯 번영하고 풍성한 내 조국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행로 우에는 이 나라 청년들의 불멸의 업적도 수놓아져 있다.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청소한 공화국을 지키는 조국 방위의 전초선에서 우리 청년들은 한치의 땅을 피로 물들이며 고지와 진호들을 지켜 싸웠고 사회주의 건설의 로력 전선에서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돌격대답게 일했다.

우리 청년들의 대오의 선두에는 불멸의 영상으로 살아 있는 리 수복, 강 호영, 조 군실이 걸어 간다. 천리마 조선의 기개를 빛내며 수천 수만의 길 확실, 리 신자, 김 수복…로동당 시대의 젊은 영웅들이 걸어 간다.

우리는 조국의 력사를 힘차게 앞으로 떠밀고 나가는 자랑찬 대오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결코 승리에 자만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빨리, 더 과감히 전진 하기 위하여 충천한 기세를 늦추지 않는다.

하루 속히 암흑 천지에서 신음하는 남녘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우리는 조금도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

조국과 시대 앞에서 지닌 우리의 책임은 무겁다.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오늘의 행복이 뿌리 박고 있는 혁명 전통과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며,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감을 높이며 과학과 기술로 무장해야 하며 튼튼한 체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공화국의 기둥으로 억년 가도 금가지 않는 조국의 뢰임’돌이 될 수 있다.

이 나라의 청춘들이여!

심장에 혁명의 홰’불을 지니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조국의 영원한 번영을 위해 몸과 마음 다 바쳐 억세게 싸워 나가자!

싸우는 월남 전우들에게 전투적 성원을 보낸다

최근 시기 미 제국주의자들은 월남에서 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꾸며 온 흉계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미제는 지난 7월 말과 8월 초에 걸쳐 월남 민주 공화국의 촌락들과 섬들을 포격하고 폭격하였으며 저희들의 군함을 보내여 민주 월남의 령해를 침범하는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 8월 5일에는 존슨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수 많은 미국 비행기들이 월남 민주 공화국의 여러 지역을 불의에 습격하여 야수적 폭격과 기총 사격을 감행하였다.

민주 월남에 대한 미제의 이와 같은 범죄적 무력 침공은 월남 민주 공화국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이며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에 대한 도전이다. 이것은 또한 동남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극히 위험한 불장난이다.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월남 민주 공화국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도발을 극악한 범죄 행위로써 격분에 넘쳐 단죄하며 그것을 중지할 것을 강경히 요구한다.

미제의 민주 월남에 대한 도발적인 무력 침공은 동남 아세아에서 뿌리채 뒤흔들리고 있는 저들의 통치 체계를 수습해 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 인민들의 영웅적 항쟁 앞에서 군사, 정치, 도덕적으로 심대한 패배를 당하고 있으며 괴뢰 집단도 심각화되는 모순과 알륵으로 말미암아 붕괴에 붕괴를 거듭하고 있다. 라오스와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도 역시 이 나라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쳐 파탄될 운명에 놓이고 있다.

이에 당황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 도발을 일층 확대 강화하는 방법으로써 월남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진압하고 칠성판 우에 앉은 괴뢰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어 주며 캄보쟈와 라오스를 비롯한 동남 아세아 인민들을 위협하고 나아가서 이 지역에 대한 저희들의 식민지 지배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침략적 야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월남 인민들과 청년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를 침해하거나 평화적 로동을 파괴하는 것을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월남 인민의 영광스러운 무장력인 월남 인민군 용사들은 자기 나라 령공을 침입한 적 비행기 11 대를 격추, 격상하고 미군 비행사 1 명을 생포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림으로써 침략자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하였다.

지금 전체 조선 청년들은 월남 형제들이 거둔 이 빛나는 전과를 자기의 일과 같이 기뻐하며 열렬히 축하하고 있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월남 인민들의 투쟁은 민족적 독립과 나라의 자유를 위한 애국 투쟁이며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이다.

월남 인민들은 그가 진행하는 투쟁의 정당성으로하여 필승 불패이다. 지금 월남 인민들과 청년들은 미국 호전광들과 그의 주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북부 월남을 반대하는 그 어떤 적대 행위라도 감행한다면 전체 인민이 한 사람 같이 궐기하여 침략자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줄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으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월남 인민의 수령 호 지명 동지는 인민들의 이 비상한 결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인민은 평화를 원하고 있으나 만약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북부 월남의 령토를 침범한다면 우리의 전체 인민은 그들을 쓸어 버릴 것이다.》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동일한 사상과 공통의 목표에 의하여 결속되여 있는 한가정의 형제인 월남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 성원한다.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월남 인민과 청년들에 대한 그 어떤 침략 행위도 자신들에 대한 침략 행위로 간주하며 그것을 결코 용허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8월 6일에 발표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성명에는

《조선 인민은 언제나 자기의 전우인 월남 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 있을 것이며 미제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할 것이다.》라고 지적되여 있다.

이것은 전체 조선 청년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한 가장 정당한 지적이다.

조선 청년들은 영원히 자기의 친근한 형제이며 전우인 월남 청년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들의 편에 서서 미제의 침략 행위를 반대하고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싸우는 월남 인민들과 청년들의 편에는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이 함께 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이 서 있다.

미제는 그 어떤 최후 발악적인 책동으로서도 저희들의 더러운 침략적 야욕을 달성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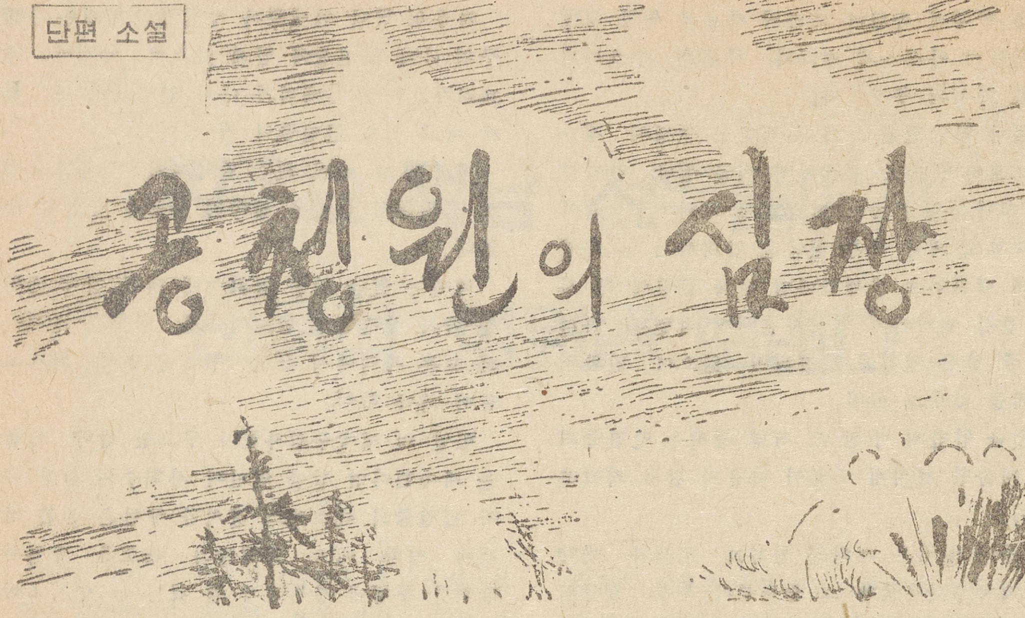
미제는 월남 민주 공화국에 대한 침략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인도지나를 비롯한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살인 무기를 걷어 가지고 물러 가야 한다.

만일 미 제국주의자들이 무모한 침략 행동을 계속한다면 월남 인민과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의 단호하고 일치한 규탄은 물론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단호한 규탄과 강력한 투쟁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승리는 반드시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월남 인민과 청년들의 것이다.



단편 소설



공청원의 심장

문 영 일

사납게 휘몰아치던 비'바람은 멎었으나 날은 아직도 개이지 않은 채로 있었다. 머리 우에는 여전히 재'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 드리우고 가야하의 강물은 노한듯이 출렁거렸다.

걸직한 안개가 강'기슭으로 감돌아 흐르고 있었다.

강'기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자그마한 둔덕 우 후미진 곳에는 나이 젊은 한 빨찌산 분대장이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여러 군데나 중상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피'기가 말끔히 가시여졌고 가슴 우에는 한장의 풀색 모포가 가리워 있었다. 의식을 잃은 그는 지금 마치 잠든듯이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역시 그로부터 멀지 않은 전방에는 나이가 열 대여섯 밖에 안 돼 보이는 얼굴에 애티 있는 한 소년이 전호 흉장에 배를 척 붙이고 강물을 주시하고 있었다. 소년 대원 창복이였다. 그의 애티나는 한 쪽 뺨에는 마치 방금 치룬 격전을 말해 주는듯 한 줄기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소년은 그것을 씻을 념도 안 했다.

지금 소년은 자기들이 조금 전에 습격한 적의 수송선을 감시하고 있는 중이다. 그 놈의 배는 강'기슭의 감탕에 고물을 처박은 채 기우뚱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허리 부러진 짐승이 그래도 살아 보려고 발버둥 치며 꿈틀거리는 모양을 방불케 하였다.

낮게 흐르던 안개가 차츰 가시여지자 적들의 너저분한 시체가 똑똑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배 우에 쓰러진 놈들도 있었고 강'기슭 감탕에 처박힌 놈들도 있었다. 어떤 놈은 배'머리에 상반신을 거꾸로 드리우고 있는데 배가 기우뚱거릴 때마다 온 몸뚱이가 그네 뛰듯이 흔들거렸다.

《개새끼들…》

창복 소년은 이렇게 뇌까리며 놈들의 시체를 세여 보기 시작하였다. 모두 40 명은 넘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눈에 띄우는 것은 그 절반도 되나마나 하였다.

(어째 저 것 뿐일가?)

창복 소년은 대뜸 이상한 생각이 났다. 찬찬히 보니 목에 쌍안경을 걸고 배'머리에 거만하게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장교 놈의 시체도 보이지 않았고 기관총을 쏘다가 머리를 싸쥐며 고꾸라지던 놈의 시체도 보이지 않았다.

(그 놈들이 더러 살아 남아서 저 배 밑창에 숨어 있지나 않을가? 혹시 지금 나를 겨누고 있을지도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는 총을 더욱 으스러지게 틀어 쥐고 한층 더 정신을 도사리고 그 놈의 배를 보고 있었다.

그에게는 간 밤에 있은 일이 서서히 떠 올랐다.

어제'밤 중대 정치 지도원이 그들의 분대에 찾아 왔었다.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면 우선 우선한 웃음부터 얼굴에 짓는 정치 지도원 동무였건만 그의 기색엔 이 날 따라 긴장한 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최 연오 분대장을 비롯한 대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후 병실의 한쪽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 근거지(삼도구)에 대한 적들의 토벌은 날마다 더욱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님께서는 이 곳의 혁명 군중을 모두 소왕청과 십리평으로 무사히 이동시키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들의 이동을 엄호하기 위하여 중대의 기본 력량은 적들이 많이 기여 드는 석현과 백초구 쪽으로 파견하였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동무들은 이 골짜기 어구에 있는 도선장을 지켜야 하겠소. 교활한 놈들은 배를 타고 기여 들어 우리의 후면을 칠 수도 있소…》

그리하여 네 명의 유격대원들은 최 연오 분대장의 인솔 하에 근거지를 떠났다. 최 연오 분대장은 시종 말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대오의 선두에 서서 걸었다. 그를 바라 보면서 창복이는 마치 커다란 바위가 앞에서 움직이며 가는듯 한 그런 미더움을 느꼈다.

(참말이지 그는 얼마나 훌륭한 지휘관이며 공청원인가.)

어렵고 위험한 일은 언제나 자기가 말아 나서는 그였다. 전투에서는 언제나 앞장 서고 곤난할 때에 다문 한 알의 감자가 생겨도 대원들부터 먼저 생각하는 그였다. 학습은 또 어떻구…그 바쁜 짬짬에도 어찌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유격대에 들어 온 후에야 글을 익혔지만 지금은 중대 내에서 《옥편》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였다. 중대 내 수 많은 대원들이 학습에서 모를 것이 있으면 의례히 정치 지도원이나 최 연오 분대장을 찾아 가군 하였다. 어느덧 그는 중대 공청 간사로 되였다.

그는 공청원들 앞에서 즐겨 이런 말을 하군 하였다.

《공산당원들은 우리 공청원들의 빛이요. 우리는 그들처럼 살고 배우며 견결히 싸워야 합니다…》

(정말이지 나도 저 최 연오 분대장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지…)

이렇게 생각하며 창복은 분대장의 뒤를 바짝 따랐다.

그들이 이 곳 도선장에 도착한 것은 밤이 퍼그나 깊어서였다. 사납게 휘몰아치는 비'바람을 무릅쓰고 30 리 령'길을 넘어 온 그들의 옷은 그야말로 물참봉이 됐었다. 몸은 피곤할대로 피곤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피곤을 풀 사이도, 모닥'불을 피우고 젖은 옷을 말리울 사이도 없었다. 적은 한밤'중에라도 기여 들 수 있기 때문이였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전호 작업부터 시작했었다.

한참 일하다가 쉴 참이였다. 노호하는 가야하의 물'결을 물끄러미 굽어 보던 최 연오 분대장은 말했다.

《창복 동무!》

《네!》

《고향이 명천이라고 했지》

《제 고향이야 뭐 여기 간도 땅인걸요. 전 여기에서 태여나 아직 한 번도 그 명천 땅엘 가 보지 못 했으니까요.》

창복이는 아직 한 번도 가 보지 못 한 조국에 대한 절절한 생각에 목이 메여 하면서 대답하였다.

《그렇게요. 명천은 정말 좋은 곳이지 동해의 해돋이가 얼마나 아름답다구… 동무, 명태라는 고기를 잘 알지?》

《알구 말구요.》

창복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었다.

《그 고길 어째 명태라 하는지 아오?》

《……》

《옛날 명천강에서 태'자 성을 가진 사람이 낚시질을 하다가 이상한 고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것인즉 아직 이 세상에서 들은 일 도, 본 일도 없는 그런 고기였다오. 부근 사람들과 물어 보았으나 그 누구도 그 고기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다 못 해 명천이라는 명(明)자와 그 낚시질'군의 성인 태(太)자를 따서 <명태(明太)>라고 그 고기 이름을 지었다오…》

최 연오 분대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조국의 산천에 대한 이야기를 제법 옛말까지 섞어 가며 어찌나 구수하게 하는지 대원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의 고향 산천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였고 그를 강점한 일제에 대한 증오를 더욱 뜨겁게 느꼈다.

분대장은 담배 한 대를 두툼하게 말아 물더니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동무들도 알겠지만 내 고향은 함북 회령땅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나에게는 저 가야하 강물이 마치 내 고향을 스쳐 흐르는 두만강처럼 느껴지오……

두만강 상류 쪽에는 정말 나무들도 많지, 낮에도 해'빛을 볼 수 없는 정도라오. 그 아름드리 나무들을 찍어다가 조국 땅 우에 공장을 세우고 인민들에게 살기 좋은 기와집들을 지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리구 또 두만강에 커다란 발전소도 척 세우고… 그 전기'불이 온 조국 땅을 휘황히 비치고… 야, 그런데 지금 그 두만강의 나무는 일제 놈들이 찍어 가고 조선 사람들은 그 강물 우로 마음 대로 오갈 수도 없게 하고 있단 말이요. 생각하면 그저…》

이렇게 말하며 최 연오 분대장은 그 망치 같은 큰 주먹을 꽉 틀어 쥐는 것이였는데 이런 때 그의 두 눈에서는 불이 황황 이는 것 같았다.

밤'중으로 전호는 완전히 굴설되였다. 모두들 습기 찬 전호 바닥에 배를 붙이고 엎드려서 전방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때였다. 그들은 적의 자동차 두 대가 강 하류 쪽 산'굽이를 돌아서 그 너머 골짜기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놈들이 그 쪽 방향으로부터도 근거지에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분명하였다.

최 연오 분대장은 곧 그 곳에 대원 두 명을 보냈다. 놈들의 자동차를 파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이 곳엔 세 명의 유격대원만 남게 되였다.

과연 그들의 예견은 들어 맞았다. 갑자기 강 아래켠에서 통탕거리는 발동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일제 군경을 실은 수송선 한 척이 배 우에 《히노마루 (일본 국기)》를 휘날리며 천천히 물'살을 거슬러 올라 오고 있었다.

배'머리에는 기관총 한 대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목에다 망원경을 건 장교놈이 거만하게 버티고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배를 이 곳 도선장에 대려는 것 같았다.

세 명의 동무들은 제각기 간 밤에 판 전호에 엎드려 적을 대기하고 있었다.

창복이는 어쩐지 속이 두근거렸다.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유격대에서는 받아 주지 않았지만 억지를 써서 입대한 후 겨우 두번째 치루는 전투였었다.

창복이는 흘깃 최 연오 분대장을 바라 보았다. 그의 적동색 얼굴엔 조금도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없었다. 지어 빙그레 웃음까지 짓고 있었다. 그런 분대장을 보노라니 창복이의 마음은 행결 든든 하였다.

이 때 최 연오 분대장의 머리 속에는 전투에서 주도권을 틀어 쥐고 적에게 불의의 타격을 안겨 일당백으로 적을 족칠 생각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그는 두 대원에게 말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골짜기 어구를 사수해야 하겠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원쑤들이 근거지를 배후로부터 쳐 들어 가게 될 게요. 그렇게 되면 그 곳 혁명 군중들을 소왕청과 십리평으로 무사히 이동시키는 일이 큰 지장을 받게 될 게요. 우리는 공청원의 영예를 걸고 여기를 끝까지 지켜야 하겠소. 동무들 둘은 저 쪽 반대 방향에 가서 유인 사격을 하시요. 그러면 놈들은 이 쪽에 우리가 없는 줄을 알고 분명히 여기로 내리려 할 게요. 그 때 우리는 집중 화력으로 놈들을 소멸합시다.》



바로 이 순간 두 동무가 적들의 자동차를 파괴하러 간 산 너머 골짜기에서 요란한 폭음이 울렸다. 그러더니 련달아 콩볶듯 하는 총'소리가 들렸다. 그 곳에서도 전투가 붙은 모양이였다.

(괘씸한 놈들, 제 아무리 자동차로도, 배로도 덤벼 들지만 우리는 한 놈도 근거지에 들여 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창복이는 분대장의 명령 대로 나머지 한 동무와 함께 반대 켠 풀숲으로 기여 갔다.

창복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눅잦히면서 목에 망원경을 건 놈을 똑바로 겨냥하였다. 그래도 큰 놈부터 제껴야 하겠다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이였다.

《땅!》 명중이였다. 그 꺽다리 장교놈은 두 손으로 허공을 그러쥐며 몸을 외로 비틀더니 《쿵!》하고 갑판 우에 나자빠졌다. 그러자 적들의 화력은 일제히 이 쪽으로 쏠렸다. 아군의 유인 전술에 걸려 든 것이였다.

한참 이렇게 쏘아 대던 놈들이 급기야 도선장 쪽으로 배'머리를 꺾더니 모두들 웅성웅성하며 내릴 차비를 하였다. 그 쪽에는 아군이 없으리라고 생각한 모양이였다.

바로 이 순간이였다. 창복이는 최 연오 분대장이 전호에서 훌쩍 몸을 솟구치는 것을 보았다. 세 개의 새까만 물체가 적들의 배로 련달아 날아 갔다.

요란한 폭음이 련속적으로 울려 퍼졌다. 때를 같이 하여 창복이네도 배를 향하여 몰사격을 담아 부었다.

적들도 만만치는 않았다. 수량 상 우세를 믿는 놈들은 연거퍼 쓰러지면서도 계속 집요하게 저항해 나섰다.

두 대원이 분대장을 엄호하면서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 갔을 때에는 그는 이미 복부에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분대장은 다시 몸을 벌떡 솟구치더니 또 하나의 수류탄을 적들의 배에 집어 넣고 쓰러지는 것이였다.

그 다음 적들은 더 나타나지 못 했다.

의식을 잃은 분대장을 두 대원은 이 곳 언덕 우 후미진 곳까지 끌어 왔었다. 그런데 두 대원이 간 산 너머에서는 아직도 총'소리가 요란하였다. 전투가 간고한 모양이였다. 그래서 한 명은 그 곳에 가고 지금 창복이만이 남아서 분대장을 간호하면서 적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분대장 동문 정말 잘 싸웠어…)

창복 소년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적정을 살피고 있었다.

이따금씩 머리를 돌려 분대장이 있는 쪽을 돌아 보군 하였다. 최 연오 분대장은 아직도 반듯하게 누운 채로 있었다.

창복이는 계속 앞을 감시하였다.

(나도 앞으론 우리 분대장 같은 훌륭한 공청원이 될테야)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그는 자기도 머지 않아 영광스러운 공청에 가맹하는 날을 머리 속에 그려 보면서 생긋 웃기까지 하였다.

등 뒤에서 갑자기 인기척 비슷한 것이 들리고 무슨 말'소리 비슷한 것이 들렸다. 그는 핵 몸을 돌이키였다. 아무도 없었다. 오직 분대장이 누운 채로 있었다. 제발 분대장 동무가 무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바질바질 탔었다. 그는 산 너머로 간 동무들이 새삼스러이 기다려졌다.

그는 다시 무슨 말'소리인듯 한 것을 들었다. 그는 귀를 강구었다.

《창…복…동…무…》

아, 그것은 분명 분대장의 목소리였다. 분대장이 의식을 회복한 것이였다. 창복 소년의 눈은 갑자기 빛을 뿌렸다.

그는 분대장에게로 급히 달려 갔다. 자기 얼굴을 분대장의 뺨에 맞부비면서 속삭이다 싶이 하였다.

《분대장 동무, 끝내 정신을 차리셨군요.》

창복이의 눈에서는 격정에 사뭇친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는 자기의 심장과 분대장의 심장이 하나로 잇닿아 함께 고동치는듯이 느껴졌다.

차츰 의식을 가다듬게 된 최 연오 분대장은 창복에게 다정한 시선을 보내며 그의 손을 더듬어 쥐였다. 그는 창복이의 뺨에서 눈물 자욱을 보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어…어째 우오…눈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못…못…주오.》

《아…아닙니다.》

창복이는 황급히 대답하였다.

《투쟁, 승리—이것만이 필요하오…그래 적들은 어떻게 되였소?…》

《한 놈도 살아 움직이는 놈은 없습니다.》

소년은 자기가 본 대로 대답하였다.

《혹, 배 밑창에 살아 있는 놈들이 있을지 모르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복이는 예비로 가지고 다니던 소금을 풀어서 다시 한번 분대장의 상처를 말끔히 씻었다. 그리고는 역시 두 사람의 각반을 가지고 분대장의 배와 가슴을 찬찬히 감기 시작하였다. 얼굴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 내리고 있었으나 입가에는 기쁨에 겨운 미소가 떠돌고 있었다.

어느 사이엔가 구름이 가시고 파란 하늘이 열렸다. 따뜻한 해'볕이 이깔나무 새에서 내려 비치고 새들이 우짖는 소리가 들렸다. 창복이의 마음은 무한히 기뻤다.

《내 총!…》

하고 분대장이 말했다. 창복이는 얼른 그의 머리맡에 있는 총을 쥐여 주었다.

《수류탄도 여기 있어요.》

그러자 분대장의 얼굴엔 기쁨이 확 피여 올랐다.

《창복 동무!…도…동무는 지휘부에 련락을 가야 하겠소.》

《네!?》

창복은 너무도 뜻밖의 일에 소스라쳐 놀랐다.

《또 적들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구 저 배에도…》

《여…기는 내가…지…지키겠소.》

《분대장 동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나더러…투쟁도 말고…살 궁리나 하란 말이요. 연필이나 좀…주오.》

분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다 무엇인가 몇 자 적었다.

《옛소…어서…가오…명령이요.》

창복이는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그럼 갔다 오겠어요.》

창복은 그만 군인답지 않은 이런 말로 대답을 하다가 얼른 자세를 바로 하고 절도 있게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러나 중한 부상을 입은 분대장 혼자만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마음 놓이지 않아서 그는 자꾸만 뒤돌아 보며 걸었다.

한동안은 나무에 가리워 보이지 않았으나 등마루에 올라 서니 가야하강이 눈 아래 보이고 분대장과 헤여진 둔덕도 환히 굽어 보였다.

그런데 이 순간 소년은 소스라치듯 놀랐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글쎄 언덕에서 어떻게 굴러 내렸는지 분대장이 비칠거리면서 적들의 편으로 다가 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적의 수송선 우에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적병 두 놈이 총을 겨누어 들고 분대장을 지켜 보고 있었다.

아직도 배 안에 적들이 있음을 간파하고 분대장이 수류탄을 감추고 놈들을 몰살시키려고 다가 가는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저들 대로 또한 분대장을 생포하려는 모양이였다. (도대체 우리 분대장에겐 어디에서 저런 힘이 생겼을가?) 창복이는 급히 총을 들어 적들을 겨냥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였다: 창복이는 수류탄을 번쩍 추켜 들더니 허공 몸을 날리며 배 밑창으로 굴러 떨어지는 분대장을 보았다. 요란한 폭음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아! 분대장 동무!》

창복은 목청껏 웨쳤다. 애타게 부르는 그 목소리에는 온 강산과 수림이 호응하는듯 하였다.

최 연오 분대장은 창복이가 떠난 후 계속 적정을 살피다가 아직도 배 안에 살아 있는 놈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살 가망이 없는 자기 몸으로 육탄이 되여 원쑤들 속에서 장렬하게 자폭하였던 것이다.

《…사람이란 용감하게 살 줄도 알아야 하고 용감하게 죽을 줄도 알아야 하오.》

하고 말하던 분대장 동무의 말이 새삼스레 생각되였다.

공청원! 언제나 투쟁의 앞장에 서는 그들, 창복이에게는 그 이름이 더 없이 높이 가슴에 울렸다. 그것은 자기의 가슴에 휘황한 빛살을 뿌리는 별 같이만 생각되였다.

갑자기 산 골짜기 너머에서 《만세!》 소리가 터졌다. 그 곳에 간 동무들도 역시 적들을 완전히 소멸한 모양이였다.

…지휘부에 도착한 창복이는 떨리는 손으로 정치 지도원에게 분대장이 준 종이 쪽지를 전했다. 정치 지도원은 그 종이에서 오래도록 눈을 뗄 줄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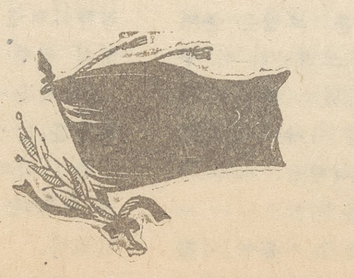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씌여져 있었다.

《…저는 당에 들고 싶었습니다. 가야하 골짜기는 념려 마십시요. 목숨으로 지키겠습니다. 창복 동무를 공청 대렬에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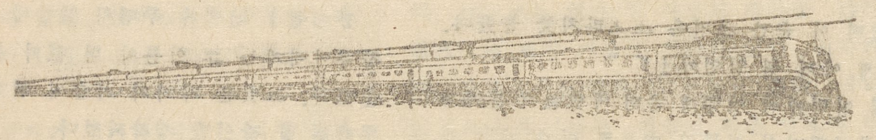
정치 지도원은 한참 동안 말 없이 서 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최 연오 동무는 참으로 훌륭한 공청원이였소. 그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요.》

1964. 6.



우리개는 또 앞으로



참으로 감격의 시각이였다.

환호성이 평양역 구내를 뒤흔들어 놓는다. 방금 여기서는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위업인 평양—신의주 간 전기 철도를 개통할 력사적인 시각이 가까와 오고 있는 것이다.

붉은 파견장을 지니고 공사장으로 떠나던 때로부터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에 젊은 전기 철도 건설자들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생각해 보라! 추운 겨울 동안에 그것도 렬차를 한시도 지체시키지 않으면서 8 개의 견인 변전소, 4,600 본의 탑주, 845 키로 메터의 전차선과 조가선과 궤전선들, 9 개의 역 구내 확장 공사, 17 개소의 굽은 선로 펴기, 6 개소의 차굴 바닥 낮추기, 5만 정의 침목 교환, 120만 립방의 토량 공사, 56만 7천 립방의 로반 정리…이렇듯 방대한 공사를 그들은 불과 반년 동안에 해 제낀 것이다. 그리하여 이 구간의 수송 능력을 2 배나 높이였고 수송 원가는 20%나 낮추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려객들은 깨끗하고 문화적인 려행을 하게 되였으니 이 또한 얼마나 좋은가!

군중의 환성, 젊은 건설자들의 기쁨에 넘친 구리'빛 얼굴들, 날리는 꽃보라와 무지개'발을 이룬 색색 테프들, 우리는 이 감격의 시각에 그들 젊은 영웅들의 들끓어 번지던 건설의 나날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어쩌는 수 없었다.

× ×

《6만 산》—이름 없던 조국의 이 한 고지는 당을 위하여서라면 그리고 조국의 만년 대계를 위하여서라면 어느 때 어떠한 일에나 불사신마냥 뛰여 들어 해내고야 마는 우리 청년들의 높은 기상을 그 대로 말해 주는 이름이기도 하였다.

…제 5 대대(함흥 철도 관리국)의 전투 과제는 하단—남시 간의 선로를 개량하는 것이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로가 심히 구부러진 구간이 있었다. 동림—차련관 사이의 선로가 그러하였다. 이것은 조선을 강점하고 대륙을 침략하려던 일제가 아무렇게나 철'길을 놓은 데서 생긴 상처였다.

《이것을 그 대로 두고 어떻게 조국의 만년 대계를 닦는다고 하겠는가…》

한 가지의 일이라도 주인다운 심정으로, 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립장에서 하는 그들이였다.

그들은 우만 쳐다 볼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설계로 이 로반을 곧추 펴기로 결심하였다.

진눈까비가 쏟아지는 밤…《6만 산》 기슭에 자리 잡은 첫 천막 안에서는 《6만 산》 정복의 설계를 맡아 나선 사로청원 한 남수 동무가 설계도에 무엇인가 그려 넣고 있었다. 가스등'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사과알처럼 열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다. 공사를 앞당겨 《6만 산》을 빨리 정복해야 탑주를 세우고 전차선을 늘이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게 되며 이른 봄에 가서 그들이 맡은 나머지 60 키로 메터 로반 개량 공사를 제때에 할 것이였다.

한 남수 동무는 낮이면 측량을 하고 밤이면 흑한 속에서 손을 불면서 설계를 그렸다. 그는 곤난할 때마다 붉은 파견장을 어루만져 보군 하였다. 그는 선 하나하나를 심장의 붉은 피로 그려 내였다.

그리하여 일제 시기 같으면 3 년을 걸린다던 《6만 산》을 단 2 개월 동안에 파 제낄 전망을 열어 놓았고 22만 2천 공수의 로력과 34만 6천여 원의 공사비를 절약할 커다란 예비를 찾아 내고야 말았다.

본격적인 《6만 산》 제거 공사가 시작되였다. 청년 철도 건설자들은 《6만 산》을 단꺼번에 날려 보낼 대 발파를 진행할 대담한 발기를 하였다. 그것을 위해서는 10여 메터에 달하는 수직갱, 사갱을 30 개나 뚫어야 했다. 그런데 9 중대가 맡은 와우봉의 여덟 개의 갱만은 신통히도 모두 굳은 암석이였다. 그래서 대대장은 몇 개 갱을 떼여서 일이 좀 헐한 중대에 넘겨 주라고 하였다. 그러나 9 중대원들은 대대장의 말을 단마디로 《거절》하였다.

그 어떤 명령이나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들, 자기가 차지할 보수를 나누어 주라면 기꺼이 나누어 줄 그들이였지만 곤난한 일은 아예 남에게 넘겨 주지 않겠다는 것이였다.

그들이 하도 고집을 쓰기에 대대장은 중대장과 함께 와우봉 수직갱으로 나가 보았다. 수직갱 안에서 왁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 안에 누가 있소?》

대대장은 좁은 수직갱을 내려다 보며 물었다.

《조 영환, 강 봉철, 유 준길 동무들입니다.》 중대장이 대답했다.

《동무들, 좀 나오시오!》 대대장이 불렀다.

그러나 안에서는

《가만히 계십시오…》하고 대답만 할 뿐 이어 《오백의 아흔 다섯이요, 오백의 아흔 여섯이요…》 하는 소리만이 나왔다.

《저 게 무슨 소리요?》

《네, 저 동무들은 메질을 700 번씩 하고야 손을 놓습니다. 그 전에는 불러도 안 나올 겁니다. 그들은 뜯어 낸 바위'돌 쪼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돌의 성질을 연구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호박에 대침 놓는 격으로 그 굳은 암석 층도 척척 뚫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대대장은 눈시울이 뜨거워져 더는 갱 공사를 다른 중대에 넘겨 주라는 말을 못하고 돌아서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청년들에 의해서 《6만 산》은 두 달이 아니라 40 일 남짓한 동안에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는 1 등 로반이 다져졌다.

그들은 바로 이런 영웅들이였다

× ×

…2 대대 전투원들 앞에는 160 톤이나 되는 신안주 과선교의 보를 통채로 달아 올려야 할 어려운 작업이 나섰었다.

어느 날 이 곳 《리 수복 영웅 청년 돌격대》 대장 리 종채 동무는 우에서 내려 온 설계와 작업 지령을 받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작업 지령에 의하면 과선교 작업을 위해서는 1 주일 동안이나 매일 4 시간씩 공사장 량쪽에서 오가는 차들을 멈춰 세우게 되여 있었다. 그 뿐인가. 1 주일 동안에 2 대의 철도 기중기를 전'적으로 리용하게 되여 있었다.

(이 작업 지령 대로만 하면 우리 일은 쉽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찌…)

그는 이 공사장으로 달려 올 때 렬차를 1 분도 지연시키지 않고 공사를 하겠다고 다짐하던 생각을 했다. 그리고 다른 공사장에서도 그렇게 필요한 철도 기중기를 오래 동안 자기

네 작업장에만 머물러 있게 하면 다른 공사장에 얼마나 지장을 주겠는가고 생각했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 다른 방도를 찾자!)

사로청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결의하였다.

그 누구도 그렇듯 어마어마한 작업을 해 본 경험은 없지만 그들은 대담하게 방도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현장에 모형으로 파선교 보와 권양기를 만들어 놓고 작업 방도를 탐구했고 《기술 보급관》을 리용해서 필요한 력학 지식들을 습득했다.

그들은 열 한 번이나 모임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협의도 가졌다.

그리하여 끝내 160 톤의 보를 들어 올리는 방도를 찾아 내였다. 알고 보면 누구든지 곧이 안 들을 일이다. 그러나 당의 의지 대로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이 청년들은 크지 않은 쟈끼 2 대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1 주일도 못 되는 동안에 해내였다.

그리하여 렬차들은 단 1 분도 지체하지 않았고 철도 기중기도 다른 공사장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 청년들은 공사 기간을 통해 4천여 원의 국가적 투자를 절약하였고 1천 7백여 공수의 로력을 절약하였다.

어찌 이러한 성과들을 프로수로만 따질 수 있겠는가!

× ×

500 리 철'길 우에 전차선을 늘인 정 승일 로력 영웅을 공사장에서는 수리개 중의 수리개로 꼽고 있었다. 《철도 전기화 속도》를 창조한 그들의 영웅적 이야기를 여기에는 다 적을 수 없다.



긴긴 겨울 그들의 솜동복은 언제나 안에서 내젖어 있었고 밖으로부터 맵짠 바람에 얼어 불군 하였었다.

그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탑주를 오르 내렸고 무거운 전차선을 끌고 몇 십리씩 강행군을 해야 하였지만 그것도 성차지 않았다.

오죽하였으면 차라리 이 세상에 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밝기 전부터 탑주 밑에 서서 날 새기를 기다렸겠는가?

정 승일 동무는 렬차가 통과하는 사이에 《두 개의 당김선 구간을 단꺼번에 울리는 방법》을 발기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단 하루 동안에 15 키로 메터씩 조가선을 늘였다. 이것은 종전보다 5 배나 되는 높은 작업 능률이였다. 이러한 영웅적 위훈으로 500 리 철'길 우에 전차선이 늘어지였던 것이다.

실로 이 기간 청년 건설자들은 4,500여 건에 달하는 기술 혁신 안을 제기하여 국가에 3천여 만원의 리익을 주었다. 청년들은 어렵고 힘 든 일에서만 아니라 기술 혁신 운동에서도 언제나 앞장에 섰다.

× ×

평양—신의주 간 철도 전기화 공사장은 그야말로 위대한 공산주의 학교이기도 하였다. 그러기에 젊은 심장들은 언제나 이 공사장에와 닿아 있었다.

…함박눈이 내리는 깊은 밤이였다. 룡주 역에서 내중으로 향한 길로 아홉 사람이 걷고 있었다. 그들의 걸음새는 몹시도 부자연스러웠다. 발을 저는 사람, 부축되여 가는 사람…

그들은 김책 공대 라지오 공학부 4 학년 김 영진 학생을 비롯한 영예군인 동무들이였다.

《7만 산》을 지원하려고 평양을 떠나 밤늦게 룡주역에서 내린 그들은 처음에는 정거장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았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누구도 잠들지 못 했다.

《공사장까지는 오 리 남짓하다니 내가 먼저 가 보고 오지!》

김 영진 동무가 다시 주섬주섬 옷을 입고 일어 섰다.

《아니 동무는 안 돼! 내가 가지.》 하고 누군가 그의 팔소매를 잡는다.

《아니 내가 갔다 오겠어.》 또 누군가 일어섰다.

《아예 우리가 잘 못 했지. 그럼 다 같이 가세!》

이렇게 하여 아홉 명의 영예 군인 동무들은 한가닥 불'빛을 향해 눈 내리는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공사장에 왔을 때 거기서는 때를 모르고 일하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이 밤'중에 오시오!》

이 곳 사로청 초급 단체 위원장 설 영순 동무가 그들을 붙안으며 말했다.

《동무들을 보니 오히려 부끄럽소. 우리도 한 축 듭시다…》

그들은 이런 말로 첫 인사를 대신했다.

조국 해방 전쟁 때 위훈을 떨친 그들 영예군인들은 불편한 몸으로도 새벽 두시, 세시에 뛰여 나가 두세 사람 몫을 하고야 들어 오군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15 일 동안을 고스란히 이 공사장에 바치고 돌아 갔다.

평북도 지원 대대 처녀 전투원 박 동옥 동무가 남들과 같이 일하고도 1천여 벌이 넘는 빨래와 600 컬레 이상의 양말을 빨아서 꿰매준 이야기며 휴가를 고스란히 공사장에 바치고도 모자라 집에 돌아 가 진귀한 꽃씨를 한말이나 수집해서 철로 주변에 심어 달라고 보낸 청진의 처녀 선반공 김 옥순 동무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평양—신의주 간을 《붉은기 521호》 전기 기관차가 내닫고 있다. 로동당 시대에 사는 청년들은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웠다.

《철도 전기화 속도》는 그들이 달리는 천리마 진군 대렬에 남긴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리정표이다.

우리는 어느 공사장 속보에 붙었던 한 전투원의 시 한 구절을 돌이켜 외워 보았다.

철 따라 피는 꽃은 철 따라 지지만
우리가 이 길 우에 피우는 꽃은
공산주의 앞날까지 지지 않으리…

그렇다! 이 영웅들은 자기들이 달려 온 길 우에 자랑찬 자국을 수 놓았고 또 공산주의에 이르는 그 길을 자랑스럽게 달려 갈 것이다.

기적 소리가 울린다! 이제 그들은 또다시 평양—신성천, 고원—홍원, 명천—청진, 아니 온 나라의 철도를 전기화할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떠나 가리라! 수리개들은 또다시 앞으로 간다.

본사 기자 한 현준

문답

농촌에서의 문화 혁명

문: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문화 혁명이 긴절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는데 리유는 무엇입니까?

답: 그것은 도시에 비하여 농촌의 문화적 락후성을 퇴치하고 문화 수준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합니다.

농촌은 도시보다 문화 기술 수준이 낮고 문화 위생적으로 뒤떨어지고 있으며 또한 농촌에는 락후한 생활 양식과 인습이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촌의 문화적 락후성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합니다.

문: 전 호에서 문화 혁명은 사상 혁명이나 기술 혁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요.

답: 문화 혁명은 사상 혁명과 기술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됩니다.

기술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문화 혁명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일반 지식과 기술 지식을 습득시키며 과학적인 영농 지식을 보급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기술 혁명은 문화 혁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문화 혁명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때에야만 기술 혁명도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을 높이고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육성하려면 사회와 자연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과 교양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문화 혁명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 그러면 농촌에서 문화 혁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합니까?

답: 그것은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며 농촌 기술 간부를 양성하며 농촌의 낡은 면모를 개변하고 온갖 락후한 생활 양식과 인습을 청산하며 생활을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리는 것을 말합니다.

문: 농촌에서의 문화 혁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과업을 해결하는 일입니까?

답: 농촌 문화 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농민들의 일반 지식 수준과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농민들의 일반 지식 수준과 기술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과 사상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테제에서는 인민 교육 부문에서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9~10 년제 기술 의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9~10 년제의 교육을 받게 되면 모든 청년들이 현대적 농기계들을 능히 자유롭게 다룰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에 기초하여 장차는 모두가 기수, 기사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촌에서 성인 교육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켜 전체 농민들이 초급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과 식물학, 토양학, 농기계학 등 농사에 필요한 기술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농촌 문화 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 문화 농촌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문화 농촌을 건설하자면 농촌 진료소들을 더 크게 잘 꾸리고 농민들에 대한 치료 사업을 잘 하여야 하며 농민들이 아름답고 아담한 문화 주택에서 살도록 농촌 문화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 상점, 리발소, 목욕탕, 구락부 등과 같은 문화 후생 시설들을 더 잘 갖추어 농민들의 문화 생활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촌에 신문, 잡지, 도서들을 더 많이 보내 주어 당 정책을 깊이 깨닫게 하며 일반 지식과 기술 지식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촌 녀성들의 로동 조건을 개선하며 그들이 사회적 로동에 충분히 참가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지어 주어야 합니다.

농촌 문화 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온갖 락후한 생활 양식과 생활 습성을 완전히 없애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선 전체 농민들이 자기의 마을과 거리를 알뜰하게 거두며 집 안팎을 깨끗하고 아담하고 위생적으로 꾸리고 협동 농장과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려 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업을 수행하게 되면 우리의 농촌은 문명하고 문화적인 농촌으로 전변될 것이며 농촌의 문화적 락후성을 퇴치하고 로동자와 농민 간의 문화 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게 될 것입니다.

문: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는 농촌 문화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생각하는 데요.

답: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농촌 문화 건설에서도 국가와 로동 계급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기간 농촌 문화 혁명이 그처럼 빨리 추진될 수 있은 것은 국가와 로동 계급의 꾸준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제에서는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앞으로 문화 주택, 후생 시설들을 비롯한 농촌 문화 건설을 국가의 자금으로 직접 건설하여 주며 교육, 문화, 보건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고 농촌의 문화 건설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테제에서는 또한 농촌 문화 혁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도로써 군을 거점으로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농촌 문화 혁명은 기술 문화 수준의 락후성, 농민 구성의 복잡성, 자연과 계절의 제약성, 작업의 분산성 등으로 하여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일정한 지방마다 지역적으로 통일성을 보장하는 거점을 창설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의 경험에 기초하여 군을 정치적, 경제적 거점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문화적 거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군이 문화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테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군 소재지에는 학교, 병원, 영화관, 서점, 도서관 등 각종 문화 후생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것들은 군 소재지와 군내 농촌 주민들을 위하여 복무한다. 군은 농촌 학교, 진료소들을 직접 관리하며 군내 농촌의 전반적 문화 위생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농촌의 당 간부들과 관리 기술 간부들도 주로는 군 교육 기관들을 통하여 양성된다. 농촌 주택들과 문화 후생 시설의 건설 사업은 군에 소속된 농촌 건설대에 의하여 진행된다.》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높이려면 군에 있는 문화 교양 기관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학교를 잘 꾸리는 것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농촌에서 문화의 보급은 학교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촌 사로청 단체들은 학교 내 사로청 조직과 소년단 단체들을 잘 발동시키며 학생 소년들이 농촌 문화 혁명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도록 항상 지도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실 화



인민의 주권을 지켜

현 룡 균

이 이야기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우리 인민 군대의 일시적 후퇴 때에 있은 일이다.

적들은 벌써 수안군 천곡면 주암리(현재 수안군 성교리)에서 서북 쪽으로 20 리 남짓이 떨어진 수안읍에까지 들이닥쳤다. 사태는 매우 위급하게 되였다.

이런 때 주암 마을 사람들과 청년들은 마을의 민주 선전실에 모여 들었다. 무장 자위대를 조직하기 위해서였다.

《…여러 분, 지난 5 년 간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행복하였습니까! 인민 주권은 우리에게 보람 있는 새 생활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쑤들은 지금 우리에게서 그 모든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는 피로써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고향 땅을 지켜야 합니다.》

세포 위원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온 방안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그의 불같은 호소에 열렬히 호응해 나섰다. 그들은 모두 앞을 다투어 무장 자위대에 입대할 것을 탄원하였다.

원래 수안 땅은 예로부터 이름 난 두메 산'골이였다. 멀리는 임진 조국 전쟁 때 란을 피해서, 가까이는 리조 말기에 미국 놈들이 수안 금광을 개발하자 땅을 떼운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서 온 곳이 바로 여기 수안 땅이였었다. 이 주암리 마을에만도 얼마나 기막힌 수난의 력사가 새겨져 있는가. 의병들을 도와주었다는 리유로 그 옛날 일제는 이 마을 스물 두 채의 농가를 몽땅 불태워 버렸고 일제와 단짝이 된 지주 놈들은 대대로 이 마을 사람들의 피땀을 빨아 제 배를 채웠다. 정말이지 일제 때 여기 모인 50여 명 사람들 가운데서 손'바닥만한 땅 뙈기 하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저기 선전실의 맨 앞줄에 앉아서 당장이라도 원쑤들을 맞받아 나아가 까부실듯 치를 떨고 있는 리 균흡 동무네 3 형제며 소 한 짝 빌릴 힘이 없어 제 어깨 우에 멍에를 메고 한뉘 밭을 갈았다 하여 《노새》라고 불리운 정 두성 동무며 열 두 살 때부터 남의 집 머슴으로 잔뼈가 굵은 김 지영 동무 등…그들의 생활은 정말로 눈물겨운 것이였었다.

해방이 돼서야 비로소 당과 인민 주권의 품'속에서 그들의 생활에는 꽃이 피였고 집집마다 웃음이 흘러 넘쳤다. 행복의 참뜻을 알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인민 정권은 소중한 것으로 되였고 또한 주권의 고마움을 알기에 그것을 빼앗으려는 원쑤들이 더 없이 미웠다.

《저도 입대하겠습니다.》

《저도 받아 주시오.》

청년들은 련달아 손을 높이 추켜 들었다.

한 홍섭, 리 균흡, 리 균석, 김 지영, 한상신, 김 능환, 최 창복…

회의에서는 로동당원들을 선두로 한 무장 자위대가 조직되였고 소대와 분대가 편성되였다. 무장으로는 마을 자위대에서 쓰던 보총 몇 자루와 날창 몇 개가 있을 뿐이였다.

× ×

주암 마을 청년 자위대원들은 처음에 살구재와 덕다리 고개, 주암 마을의 문이라고 부르는 《글 쓴 바위》에 보초를 세우고 마을을 지켰다.

언진 산맥의 말메산과 거지산 짬에 자리잡고 마치 사공배처럼 길죽한 계곡을 이루고 있는 이 마을은 수안군 소재지와 세 개의 면 소재지 그리고 다섯 개의 리들과 린접하고 있었다.

적들이 수안읍과 면 소재지를 강점한 초기의 어느 날 상구리와 남정리의 치안대 놈들이 미군 놈들의 지시를 받고 련달아 마을에 기여 들었다.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는 위인들이 총'대를 비뚜름히 메고 허세를 부리며 기여 드는 꼴이란 정말 말이 아니였다.

주암리 청년 자위대원들은 놈들이 기여 드는 길목에 매복했다가 일제히 불질을 하였다. 놈들은 벌써 몇 방의 총'소리에도 질겁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군 하였다.

그들은 마을에 기여 든 적들의 밀정 놈들을 붙잡아 처단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한 상신 동무네 집에는 변장한 네 놈의 괴뢰군 놈들이 기여 들었다는 급보가 자위대 본부에 전해지였다. 그 때 자위대에는 한 자루의 총 밖에 없었다. 나머지 총들은 모두 멀리 떨어진 초소들에 나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였다. 청년 자위대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아 긴급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우리가 만일 마을에 기여 든 저 밀정 놈들을 그냥 살려 둔다면 마을의 모든 비밀이 탄로될 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 놈들을 처단합시다.》

《옳소. 그렇게 합시다.》

청년들은 한사람 같이 부르짖었다.

김 지영, 정 두성, 리 균석, 리 소녀, 한확실 등 청년 자위대원들은 깊은 밤 창과 도끼로 무장을 하고 적들이 있는 한 상신 동무네 집에 접근하였다. 놈들은 방 안에서 저희들끼리 무엇이라고 히히덕거리고 있었다.

청년 자위대원들은 문을 벌컥 열어 젖히며 벽력 같이 소리 질렀다.

《개놈들아, 꼼짝 말앗!》

그리고는 이미 준비해 가지고 온 고추'가루를 방안에 확 뿌렸다. 놈들은 눈을 못 뜨고 비명을 지르며 이 쪽 저 쪽으로 헤덤비였다. 자위대원들은 일제히 달려 들어 총 한 방 쏘지 않고 놈들을 박달 방치로 때려 잡았다.

얼마 후 그들은 역시 이렇게 졸개놈 다섯을 데리고 마을에 기여 든 변장한 국방군 장교



놈도 때려 잡았다. 놈들의 강점 기간 이 곳 자위대원들이 처단한 적 밀정 놈들만 하여도 40여 명이나 되였다.

그들은 린접 《치안대》를 습격하고 악질 놈들을 처단하기도 하였고 깊은 밤 도로와 교량들을 끊어 놓고 .적들의 후방로를 차단하기도 하였다. 적들이 강점한 마을에 숨어 들어서는 울바자와 집 담'벽들에 삐라를 붙이기도 하였다.

《조선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만세!》

《인민을 배반하는 자들은 인민의 처단을 면치 못 한다.》

《피로써 인민 주권을 지키자!》

이러한 구호 밑에는 의례히 《주암 자위대》라는 글이 뚜렷이 씌여 있었다. 이것은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불러 일으키였고 적들에게는 공포를 안겨 주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인민들의 단결된 힘이다. 으리으리한 무장을 갖춘 미제 고용병들도 이 용감한 인민 복수자들 앞에는 어찌는 수 없었다.

그들의 무장은 날로 늘어 가고 그들의 전투 사기는 날로 높아져 갔다.

× ×

1950년 12월 9일.

주암리 자위대 본부에는 적들의 땅크, 장갑차, 자동차들이 길이 메게 남으로 도주한다는 정보가 들어 왔다. 크리스마스의 축배를 압록강에서 마시겠다고 호언 장담하던 미제 고용병들이 패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군 척후 부대에 의하여 신계—개성 간과 신계—시변리 간 도로까지 모두 막히게 되자 평양을 겨우 빠져 나온 미군 패잔 부대의 한 기계화 대대 놈들이 그래도 살아 보겠다고 수안군을 거쳐 돌고개로 밀려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보를 곡산 빨찌산으로부터 받은 주암리 자위대 본부에서는 놈들을 일거에 섬멸할 면밀한 작전 계획을 세웠다.

그 날은 눈보라가 몹시 휘몰아 쳤다. 35 명의 무장 자위대원들은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돌고개로 향했다. 돌고개의 벼랑'길은 약 150 메터의 길이로 벼랑 중턱을 띠처럼 에돌아 갔다. 길 우에는 삐죽삐죽 바위들이 배를 내밀었고 길 아래로는 나는 새도 범접 못 하게 깎아 질러워 있었다. 그야말로 적들을 때려 잡기엔 더 없이 좋은 곳이였었다. 대원들은 제각기 벼랑'길 우에 자리를 정하고 몸을 숨기고 있었다.

이윽고 원쑤들의 찦차 한 대가 부르릉거리며 나타났다. 창문으로 양키 두 놈이 좌우로 낯짝을 내밀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도로 정찰을 나온 놈들이 분명하였다.

양키 놈들을 노려 보는 청년 자위대원들의 눈에서 황황 불이 일었다.

(저 놈들이 바로 북반부 땅에 기여 들어 수많은 인민들을 학살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가슴은 분노로 떨렸다.

과연 그들이 예견했던 대로 달려 오던 찦차는 갑자기 되돌아 서더니 쏜살같이 오던 방향으로 사라지였다.

(옳지! 이 번에야 기본 부대 놈들이 나타나겠지.)

대원들은 바삐 벼랑에서 뛰여 내려 가 벼랑'길의 동쪽 끝을 끊어 놓았다. 놈들이 앞으로 더 전진하지 못 하도록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 때로부터 한참 후. 놈들의 기계화 부대 대렬이 길이 메게 나타났다. 악마 같은 소리를 지르며 장갑차, 자동차, 찦차 등이 꼬리를 물고 자위대원들의 차단 구역에 접근하였다. 길이 끊어진 자리에 이르자 놈들의 선두차가 멎었다. 그러자 놈들의 대렬은 악마구리 끓듯 하였다.

이 때 놈들이 통과한 후면에서도 요란한 폭발음이 들렸다. 우리 자위대원들이 퇴로를 끊어 놓는 소리였었다.

이제 놈들은 완전히 독 안에 든 쥐 격이 되였다.

《사격!》

드디여 최 성윤 지휘관의 사격 구령이 내렸다. 대원들의 총구는 일제히 불을 뿜었다.

너무도 뜻밖의 불벼락에 놈들은 얼이 나가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앞 차를 받아 넘기는 놈, 차 밑으로 기여 드는 놈, 지어 차를 탄 채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는 놈들도 있었다. 대원들은 온갖 증오를 담아 놈들을 쏘고 또 쏘았다.

《한 놈도 놓치지 말자!》

《피로써 우리의 고향과 주권을 지키자!》

《놈들에게 쓰러진 부모 형제들의 원쑤를 갚자!》

이런 웨침이 사방에서 터졌다. 격전은 계속되였다. 그러나 자위대원들에게는 총탄이 떨어져 갔다. 그렇다고 어찌 독 안에 든 원쑤 놈들을 한 놈이라도 놓칠 수 있으랴.

민청원 김 종숙 동무가 먼저 바'줄을 타고 아우성치는 놈들의 머리 우로 뛰여 내렸다. 그 뒤를 이어 리 균석, 김 지영 등 다른 동무들도 연방 뛰여 내렸다.

비좁은 벼랑'길 우에서 가렬한 육박 전투가 전개되였다. 용감한 청년 자위대원들은 몸을 전후 좌우로 돌리며 놈들을 총창으로 찔러 눕혔다.

그런데 이 때 리 균석 민청원은 그만 왼 팔에 중상을 입었다. 그는 앞으로 쓰러지였다.

(나는 민청원이다. 한 놈의 원쑤라도 더 많이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든 균석 동무는 다시 벌떡 몸을 일으키였다. 그는 몸을 비칠거리면서도 앞으로 달려 드는 놈을 힘껏 찔러 눕혔다.

놈들의 더러운 시체는 두 겹, 세 겹으로 길 우에 깔렸다. 싸움은 사위가 어두워서야 끝났다.

이 전투에서만도 주암리 청년들은 미군 108 명을 살상하였고 5 대의 자동차와 38 정의 보총을 비롯한 수 많은 전투 기재들을 로획하는 빛나는 전투 공로를 세웠다.

이리하여 그들은 근 2 개월에 걸치는 적들의 강점 기간에 자기들의 향토와 인민 정권을 튼튼히 지켜 내였고 주암 마을 상공에는 언제나 오각별 찬란한 공화국기가 힘차게 나붓기였다.

공산주의 수양

사상 수양과 자기 비판

심 상 진

공산주의자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상 수양은 일생을 두고 계속하여야 할 일이다.

강철은 불'길 속에서 단련되며 훌륭한 혁명가는 실천 투쟁과 더불어 사상 수양의 과정을 거쳐서야 육성되고 훈련된다. 실천 투쟁과 사상 수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성의 혁명가란 있을 수 없다. 또 계속 부단한 사상적 수양을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 《완성된》 혁명가도 없다. 비록 수양을 많이 한, 준비된 일'군이라 할지라도 도달된 성과에 도취하여 교만해지거나 자신의 사상 수양을 게을리 한다면 그는 점차로 《변질》되고 타락되여 이미 가지고 있던 혁명적인 요소마저 잃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상 수양은 마치 생물체에 공기가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사업이다.

더우기 우리 조국의 앞날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에게 있어서 사상 수양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혁명 선배들의 위업을 계승하며 이 땅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할 사람들이다. 청년들이 이러한 숭고한 력사적 임무를 능히 담당할 수 있는 참된 혁명 전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적 사상 수양에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끊임 없는 사상 수양을 통하여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정신을 배양하며 온갖 낡은 관념과 생활 인습을 타파하고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혁명적 생활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청년들의 사상 수양에서 유력한 수단의 하나는 비판과 자기 비판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비판과 자기 비판을 자기 발전의 동력으로, 위력한 무기로 삼는다. 온갖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목숨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계급적 본질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투쟁 목적이 정당함으로 하여 대중 앞에 숨길 것이란 없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전진 도상에서 생겨 나는 그 어떠한 결함이나 부족점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내놓고 그것을 비판하며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공개적인 자기 비판을 그 어떤 《체면》이 깎이거나 《위신》이 떨어지는 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대로 공개적인 비판과 자기 비판은 부족점을 극복하고 앞으로 더 과감히 전진할 수 있다는 확신성의 표시로 되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대중을 위하여 더욱 충실히 복무하려는 결심의 표시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 사업의 결함을 늘 비판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 세수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지 않고 때가 낀 대로 그냥 두어두면 때가 쌓이고 쌓여서 얼굴에 병이 나고 마지막에는 얼굴이 아주 못 쓰게 변하고 말 것이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비판하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결함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매일 아침 얼굴의 때를 씻어 내듯이 우리는 자기 사업에서 결함을 항상 씻어 내야 한다.**

자기 사업의 결함을 일상적으로 비판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없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자신의 준비 정도가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 가지 못하거나 혁명적 수양이 부족한 데로부터 사업과 생활에서 결함과 부족점을 발로시킬 수 있다. 결함이 발로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결함이나 부족점이라도 발로되면 그것을 덮어 두지 않고 제때에 성실히 비판하고 고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규약에는 《동맹원은 동맹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동지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비판하며 자기 결함을 대담하게 고쳐야 한다.》 (동맹원의 의무 14 조항)라고 지적되여 있다.

청년들은 사상 수양에서 비판과 자기 비판이 가지는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기 비판에 대한 원칙적인 태도란 항상 당과 혁명의 리익, 인민 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사상과 생활을 돌이켜 보며 당의 로선과 정책,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지침으로 하여 자신의 사업에서 발로된 부족점을 자각적으로 내놓고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비판에 대한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자기 비판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전개하는 것이다.

자기 비판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사상 수양을 위한 방도인 것 만큼 청년들은 항상 스스로 자기의 사상 생활과 실지 사업을 검토해 보고 부족점을 찾아 내여 시정하는 방향에서 자기 비판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자기의 과오와 결함은 본인이 더 잘 아는 법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자신의 결함에 대하여 남이 모른다 하여 숨겨 두거나 외부의 자극에 못'이겨 마지 못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내놓고 옳고 그른 것을 사실 대로 말하며 남이 모르는 결함에 대해서까지도 숨기지 않고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조직과 동지들을 믿고 자기의 결함을 허심하게 내놓아야 그들의 따뜻한 지도와 방조를 더 잘 받을 수 있다.

자기 비판은 비단 회의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하며 생활화하여야 한다. 자기 사업을 매일매일 자체로 검토해 보고 제때에 총화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가적 기풍의 중요한 표현이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총화짓고 자기 비판해 볼 줄 아는 일'군이라야 자기의 사상 수양을 부단히 높일 수 있으며 항상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며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사람으로 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매일 돌이켜 보고 총화를 지어야 한다. 자기 전도 좋고 밥 먹을 때도 좋다.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하였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도 못 하였고 그것을 왜 못 하였는가, 내가 오늘 사업에서 잘못 한 것은 무엇인가, 말에서 실수나 한 것이 없는가, 행동에서 지나친 것이나 없는가> 이렇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매일, 매 주일, 매달 총화를 지어야 한다. 그리하여 나타난 결함은 대담하게 고치고 우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동지들의 비판에 대하여 항상 허심하게 자기 비판적 립장에서 받아 들이는 문제이다.

동지들의 비판이 비위에 거슬린다거나 부분적인 사실이 꼭 들어 맞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변명하거나 일정한 여지를 남겨 두고 조건부로 받아 들이는 것 등은 비판에 대한 옳은

때도가 아니다. 동지들의 비판은 어디까지나 나타난 결함을 더 빨리 고쳐 주려는 동지애의 표현이며 또 실지로 그것은 자신의 사상 수양을 높이는 데 귀중한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동지들의 비판에 대하여 아니꼽게 여길 것이 아니라 비록 맹혹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받아 들일 줄 아는 넓고 깊은 도량을 가지도록 자신을 부단히 수양하여야 한다.

비판은 반드시 실천 활동과 결부되여야 한다. 비판의 종국적 목적은 결함이나 부족점을 인정하고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지 사업과 생활을 통하여 그것을 철저히 고치며 사상 의식을 개변하고 자신을 공산주의적인 혁명 투사로 단련하는 데 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리론과 실천, 말과 행동의 일치는 가장 고귀한 품성의 하나이며 언행의 불일치는 자본주의 사회가 남겨 놓은 가장 추악한 유습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일단 비판된 문제에 대하여 대담하게 시정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도 청년들은 항상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 보아야 한다.

누구든지 모든 사업을 다 잘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때때로 결함과 부족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결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낳게 한 근원을 밝히고 앞으로의 시정 방도에 대하여 뚜렷한 결의와 목표를 내세우며 그것을 실지로 극복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는 데 있다.

청년들은 자기 비판의 예리한 무기로 항상 자신의 사상 생활에서의 결함을 시정하고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열렬한 청년 공산주의자로서의 당성을 단련하기 위하여 부단히 수양하여야 한다.



생활의 거울

주인 된 심정으로

어느 캄캄한 밤이였다. 우리 2, 8 마궁 세멘트 공장에서 일하는 장 명길, 홍 기철 두 동무는 밤'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 가고 있었다.

그들이 공장 구내를 벗어 나 산굽이를 돌아섰을 때였다. 어디에선가 보'뚝이 터져서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가 났다.

(그냥 둔다면 숱한 벼들이 못 쓰게 될 것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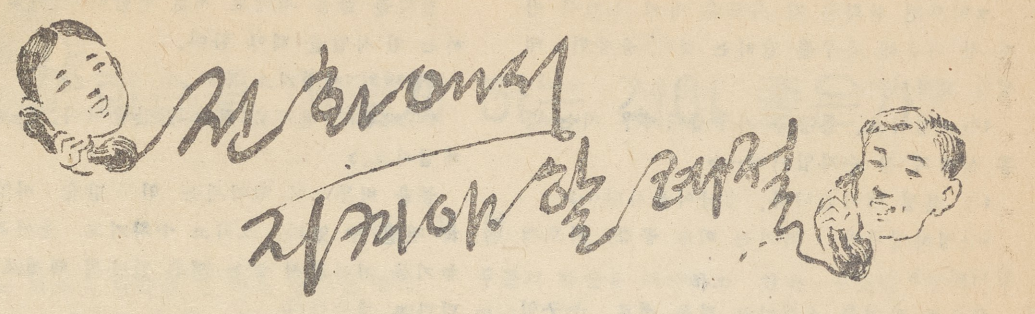
이렇게 생각한 그들은 지체 없이 뚝이 터진 곳으로 달려 가 그것을 막기 시작하였다. 아무런 쟁기도 손에 진 것이 없는 그들의 일은 여간만 힘들지 않았다. 맨손으로 흙을 파서 터진 곳을 메꾸기도 하였고 어둠 속을 뛰여 다니며 큰 돌을 주어다 던져 넣기도 하였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땀이 비 오듯 하였다. 그래도 마음만은 흐뭇하기 그지없었다. (비록 조금이나마 농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가슴에 차고 넘쳤다.

얼마 후 기승을 부리던 물'살도 고개를 숙이고 15,000여 평의 논밭에 넘실거리던 곡식들도 구출되였다.

그래도 그들은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 밤으로 뒤그나 멀리에 있는 수로 관리원을 찾아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셀녘에야 집에 돌아 갔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농장원들은 이 두 로동 청년의 기특한 소행에 몹시 감격해 하였다.

통신원 김 계식



전화에서 지켜야 할 례절

리 기원

《청년 직장의 리 성호입니다…》

《여보세요, 부기부입니다. 어느 분을 찾으세요…》

전화를 걸었을 적에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된다거나 또는 전화를 받았을 적에

《청년 직장의 강 철구입니다. 박 준호 지도원 동지를 바꿔 주실 수 없겠습니까?》

《1 작업반장이올시다. 위원장 동지를 뵈옵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좀 바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등의 부탁을 받게 되였을 적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건 자연히 친근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공손하게 말을 건네게 되고 몸가짐까지도 바로 가지게 된다.

그러나 전화를 걸거나 받았을 적에 이렇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다.

자기가 누구라는 소개도 없이

《여보! 박 상호 동무 좀 바꿔 주.》라고 반말투로 말을 건다거나

《여보 누굴 찾소? 그 동무 나가고 없소…》

《누구요? 누구? 동무는 누구요?》하고 퉁명스러운 말이 오고 가게 되면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경우일지라도 자연히 흐린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불쾌한 선입견으로 본의 아닌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언제나 례절을 지켜 말할 것이지만 전화의 경우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라면 남을 더 잘 알고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리해할 수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문제가 다르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는 하나 그것도 기계음이지 직접 목소리와는 다르고 상대방의 표정도, 기분도 잘 알 수 없다.

전화를 거는 사람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찾게 되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은 전혀 뜻하지 않은 경우에, 때로는 몹시 바쁘거나 누구와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경우에 전화를 받게 되는 수가 있다. 그 경우들을 여기에 다 이야기 할 수는 없으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경우와 꼭 같을 수가 없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더우기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믿을 수는 없게 마련이다.

그러면 전화의 말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첫째로, 부드럽고 친절한 말씨로 례절 바르게 말해야 하며

둘째로, 똑똑하고 바르게 말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자면 전화를 건 사람은 자기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용무를 말하는 것이 응당한 례절일 것이다.

《여보십시오. 통흥동 사무솝니까? 저는 통흥 상점의 정 순자입니다…》

《정 선생 댁이십니까. 정남이올시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비료 공장 자료청입니다…》

등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서로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 꼭 필요하다.

자기 소개와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아무개를 찾아 달라거나, 어떤 일을 돌봐 달라거나 하는 등의 용무를 말해야 할 것이다.

웃어른에게 전화를 걸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 찾아 가 뵙지 못 하고 전화로 실례한다는 내용을 함께 말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받는 사람의 경우도 누가 전화를 받는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 주는 것이 응당하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 전화를 받기 전에 가졌던 이러저러한 감정이 연장되면서 간혹 거친 말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한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오래동안 같이 이야기할 형편이 못 되여서 다른 기회에 전화를 걸어 줄 것을 부탁할 적에도 좋은 말로 사정을 이야기 한다면 좋은 기분으로 전화를 끊을 수 있겠는데 가량 없이 말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을 노엽게 하는 수도 없지 않다.

《다시 한 번 걸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지금 자리를 뜨고 없습니다…》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30 분 후에 다시 한 번 걸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강의에 들어 가셨습니다. 제가 전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등과 같은 말을 듣고 나면 누구나 도저히 무리한 요구를 자꾸 하게 되지 않는다.

전화를 끊을 적에도 서로 만났다 헤여질 때 하는 인'사말을 해야 한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쁘신데 전화로 실례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등을 비롯하여 헤여지는 인사'말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다. 그리고 수화기도 웃어른이 놓기를 기다려서 놓는 것은 일반적 례절로 되리라고 생각한다.

똑똑하고 바르게 말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더욱 필요하다.

목소리를 돋우어 크게 말한다고 똑똑히 들리는 것은 아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울려서 말을 똑똑히 가려 들을 수 없게 하는 수가 많다.

전화란 경우에 따라서는 잡음으로 하여 알아 듣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인데 말'소리까지 똑똑치 못 하고 보면 전혀 무슨 소린지 분간키 어렵게 되는 수가 있다.

받아 써야 하는 경우에 전화의 말이 똑똑치 않다면 이것 같이 안타까운 일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말과 글이 꼭 일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한자한자 또박또박 끊어서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간 사람의 성과 이름까지도 잘 못 적히기 쉽다. 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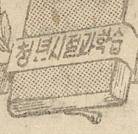
《렴 복만》이 《연 복만》으로,

《김 영흥》이 《김 영훈》으로,

《채 승호》가 《최 승호》등으로 되는 수가 있다.

수'자 같은 것은 《륙만 칠천 삼백 칠십 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여섯, 일곱, 셋, 일곱, 다섯》등으로 불러 주면서 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전화의 말을 례절있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교제를 더욱 원만하게 함에 있어서 절실히 필요하다.



학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김 재 경

우리는 평소에 학습을 잘 하는 동무들 중에서도 어떤 동무들의 학습은 성과가 크고 어떤 동무들의 학습은 그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은 것을 보게 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학습 태도와 방법에 많이 의존된다고 생각한다.

학습 태도와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창조적 학습이고 다른 하나는 기계적, 교조주의적 학습이다.

기계적, 교조주의적인 학습 태도가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실례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김 동무는 학습 열의가 높은 동무다. 집체 학습에서 학습 규률도 잘 지키고 일상 생활에서도 짬만 있으면 책을 읽는다. 우리는 그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노력하는 것 만큼 학습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학습 토론 때에도 잘 나서지 못 하고 기능 급수도 남을 따르지 못 하며 작업에서도 창발성이 적다. 이를 안타까이 생각한 동무들은 그의 학습 태도와 학습 방법을 료해해 보았다. 결함이 밝혀졌다. 김 동무의 학습은 책에 있는 지식과 강의에서 들은 필기 내용들을 암송하는 데만 힘을 기울이는 것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읽은 책과 들은 강의 내용들을 그냥 암기하여 옮기는 데는 누구보다 앞섰지만 이 지식을 실지로 써 먹지 못 하며 또 인차 잊어 버리고 만다. 무엇이 성실한 김 동무의 학습을 가로 막았는가? 그것은 그의 기계적, 교조주의적 학습 태도와 방법 때문이였다.

우리는 이러한 학습 태도가 아직도 많은 동무들의 학습을 저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와는 다른 실례가 있다. 전력 설계 연구소 로력 영웅 심 광천 동무는 기술 전문 학교에 다닐 때부터 공부에 파고 드는 동무였다. 그는 교원의 설명을 빠짐 없이 들어 리해하였고 몇 번이고 읽고 자체로 재기면서 교과서에 통달하였다. 그는 무엇인가 줄곧 생각하였고 어떤 문제든지 끝까지 해명하지 않고 넘어 가는 일이 없었다. 모든 문제를 자체로 재기고 직접 실험과 실습에서 검증하였다. 그는 어려운 과목이나 과제일수록 더 달라붙었다. 그는 제일 어려운 고전압 공학을 위하여 여러 곳을 찾아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책은 다 얻어서 자체로 연구하였고 또 실지 전철장에 나가서 그것을 익히였으며 다른 동무들이 다 포기한 철탑 응력도를 오래동안 고심한 끝에 자체로 완성해 내고야 말았다. 이렇게 학습하였기 때문에 그는 배운 리론을 실지 사업에서 능숙하게 적용할 수 있었으며 많은 가치 있는 창의 고안을 해내였다. 그리하여 널리 알려진 《22만 볼트 송전선 회전형 철탑》을 창안하여 국가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런 학습과 로력 과정을 통하여 그는 로동당원으로, 기사로, 로력 영웅으로 자라났다.

우에서 든 두 개의 실례를 대비할 때 우리는 창조적 학습 태도가 어떤 점에서 우월하고 왜 기계적이며 교조주의적으로 학습해서는 안되며 꼭 창조적으로 학습해야 하겠는가를 깨닫게 된다.

창조적 학습은 맹목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쓰면서 깊은 사고를 통해 중요한 것과 기본적인 것을 갈라 내며 모든 지식을 서로 련결시키며 자기 힘으로 학습 내용을 철

저히 해명하고 결론을 찾아 낸다. 때문에 그것은 넓고 확고한 지식으로 된다.

기계적으로 외워 넣은 지식은 얼마 안 가서 잊어 버리나 이렇게 사고하면서 습득한 지식은 오래동안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창조적인 학습은 학습과 생활, 리론과 실천을 결합하여 습득하기 때문에 실지로 써 먹을 수 있는 실천적 지식으로 되며 실천 활동의 강력한 무기로 되는 것이다.

또한 창조적 학습은 사고력을 배양하며 앞으로 더욱 훌륭하게 학습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 준다. 그러므로 창조적으로 학습하는 동무들은 발전이 빠를 뿐만 아니라 흥미와 열성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게 되며 학습도 잘 하고 일도 잘 하는 훌륭한 일'군으로 자라 날 수 있다.

그러면 창조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창조적 학습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사색하는 것이다.

아무런 사고도 하지 않고 그저 서적이나 강의에서 남이 가르쳐 준 지식을 통채로 삼키면서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학습 방법은 교조적이며 독경적인 학습 방법으로서 과거 낡은 사회의 나쁜 유습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학습 태도, 학습 방법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무엇인가?》, 《왜 그런가? 어째서 다르게는 되지 않고 바로 그렇게만 되는가?》, 《그는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발전하였는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 사물 현상들의 호상 관계는 어떠하며 그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 혁명 과업, 우리 사회주의 건설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우리 사업에 적용할 것인가?》

우리의 학습은 이렇게 모든 문제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학습이며 이를 자기의 사고, 자기의 노력으로 풀어 내는 전투적 학습 방법이다.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써서 배우고 얻어 낸 지식이 아니면 쓸모 있는 지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학습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동무들은 다 이렇게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학습할 때에는 다양한 학습 방법과 수'법들을 의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례를 들면 대비법, 분석과 종합, 귀납과 연역법 등이다.

례를 들면 사회 과학에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은 계급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와 대비할 때에라야만 명백히 파악할 수 있다. 화학에서 합성 고분자 물질인 비날론을 학습할 때에도 나이론, 니트론, 비클론 등의 성분과 생산 과정, 제품의 성질과 용도 등을 대비할 때 비날론의 특징을 더 잘 알 수 있다.

분석과 종합도 매우 중요하다. 례를 들어 조선어와 문학, 외국어도 문장의 분석과 종합을 거치지 않고서는 리해할 수 없으며 수학과 물리의 간단한 문제도 분석과 종합이 없이는 풀 수 없다.

귀납과 연역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학습이나 과학 연구도 다 개별적 현상과 일반적 결론을 련결시키는 귀납법과 연역법의 결합으로써만 이루어진다. 모든 과학에서 개별적 실례들을 통하여 공식과 법칙을 얻어 내는 귀납법도 중요하지만 이 공식과 법칙을 적용하여 다른 개별적 현상을 료해하고 해결하는 연역법도 중요하다.

토론과 론쟁의 방법도 우리들의 학습에서 적극적 사고와 창발성을 발동시키며 과학 탐구에서 군중의 지혜로 자기를 보충하게 한다. 그러므로 학습에서는 깊이 연구한 것에 토대하여 동지들과 집체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토론하고 론쟁하는 것이 유익하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는 적절한 제목을 가지고 소론문을 작성해 보는 것도 창조적 사고를 발전시키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자학습으로 자라 난 립석 협동 농장 처녀 관리 위원장이며 로력 영웅인 최 영자 동무가 전국 농업 과학 기술 토론회에서 발표한 경험 론문《립석리에서의 벼 재배 경험에 대하여》가 참

가자들의 감명을 불러 일으킨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는 비상한 노력으로 이 론문을 통해 자기의 연구 성과와 경험을 체계화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창조적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직접적 체험을 통하여, 실천을 통하여 배우며, 리론과 실천, 학습과 생산 로동을 결합하는 것이다.

우리가 습득하는 지식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책이나 교원, 강사 등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지식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의 직접적 체험을 통하여 배우는 지식이다. 전자는 직접 체험하지는 못 하였으나 사회 력사적으로 확인되고 일반화된 지식이며 후자는 직접 체험하였으나 아직 군중적으로 검증되고 일반화되지 못한 지식이다.

우리에게는 이 두가지 지식이 호상 결합되고 서로 보충되도록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에게서 배운 것만으로는 결코 생동하고 쓸모 있는 전투적 지식으로 될 수 없다. 최대한도로 직접 배우려는 노력, 사물 현상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실습하는 방법 즉 실지 체험을 통한 학습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관찰과 실습 등 이러한 실천을 통해 학습한 것은 리해가 빠르고 명백하며 정확하고 공고하며 쉬이 잊어 버리지 않으며 언제나 실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하여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색도 굳건해지며 리론과 실천이 결부되고 학습과 생산 로동이 결합되여 훌륭한 기술 기능도 배우게 된다. 또 여기서 공산주의적 품성도 배양할 수 있게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자기 학습에서 리론과 실천을 결부시키며 학습과 생산 로동을 결합하기에 항상 의도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학습에서 배운 리론을 항상 실험실 작업이나 생산 작업에서 그리고 생활에서 적용하기에 노력하는 일방 생활과 로동에서 얻은 경험과 제기된 문제들을 십사 숙고하면서 학습에서 해명하며 이를 리용하기에 힘 써야 한다.

실천을 통해서 배우며, 일하면서 배우는 창조적 학습 방법의 생활력은 이미 대중적 경험을 통해 확증되고 있다.

량강도 위연 림업 기계 공장 로 병윤 동무는 중학을 졸업하고 기술 공정원으로 일하면서 고등 기술 학교의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그는 자기가 학습한 금속 공학의 원리를 리용하여 자기 공장에서 계속 난문제로 남아 있던 내연 기관의 피스톤 링그를 만들어 생산을 보장 하였다.

강계 포도주 공장 실험실장 리 창림 동무는 부부가 다 경공업 대학 식료 가공학부에서 배우면서 우리 나라에 없던 《식료 청등제》를 발명하여 주류 제품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제 시장에서 호평을 받는 발효주 생산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 청년들 속에서 보통 볼수 있는 실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실천을 통한 학습은 청년들로 하여금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우면서 학습에서도, 로력에서도 기적과 위훈을 낳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창조적 학습을 신비로운 것으로 또는 단순한 방법상 문제로만 생각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창조적 학습은 공산주의적 학습 태도이며 방법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동무라면 누구나 창조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창조적 학습은 평탄한 길이 아니며 맑스가 말한 바와 같이 험산 준로를 추어 오르는 어려운 투쟁의 길이다. 우리 청년들은 항일 투사들이 그 간고한 환경에서도 모든 힘을 다하여 학습한 것처럼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정확한 관점에 서서 불타는 정열과 불요불굴의 투지로 배워 나가야 한다.



김 인섭

(1)

1952년의 늦은 봄 어느 날, 부소대장 김 병수는 대대장의 부름을 받고 바삐 대대 지휘부로 달려 왔다.

대대장은 그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대단히 빨리 왔구만…20 리 길을 이렇게 빨리 온 걸 보니 줄곧 달려 온 모양이구만…》

《예, 좀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자, 어서 앉소.》

대대장은 병수에게 의자를 권하고는 자기도 자리에 앉았다.

《그래, 어제 저녁 부락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구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길 해 보오.》

《아까 전화를 건 이상은 아직…》

《놈들이 종은 우물'가에서 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대대장 동지, 전…여기 저기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대에 임무를 주십시오. 그 놈들을 모조리 소탕해 버리게 말입니다.》

병수는 격해 오는 가슴을 진정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속심을 털어 놓았다.

《그래 부소대장 동무는 어떤 적들인 줄 알구 임무를 달라는 거요?》

《어떠한 적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다…》

대대장은 책상 앞에서 물러나 병수 옆에 와 가지런히 앉으며 말하였다.

《병수 동문/ 여기가 고향이라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약 40 리 떨어진 구미포가 바로 저의 고향입니다.》

《그럼 여기 지형은 잘 알겠구만…》

《예, 그리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병수는 새삼스레 이런 것을 묻는 대대장의 심정을 리해할 수 없어서 그의 얼굴만 마주 바라 보았다.

《그래 부모님들이 돌아 가신 곳도 바로 그 구미포요?》

《그렇습니다.》

《음…》

대대장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 나 창문'가를 거닐다가 한참 후에 다시 병수에게로 돌아 섰다.

《병수 동무, 놈들을 소탕해야겠소. 상부의 통보에 의하면 미국놈들은 저 백령도로 도망치면서 적지 않은 병력을 장산 반도에 계획적으로 떨궈 놓았소, 이 놈들은 이미 일정한 근거지를 차지했는데 일제 시기 장산 반도 일대에서 선주 노릇을 해 먹던 백 치원이란 놈이 이 놈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그 소굴을 알아 내지 못 하고 있소.》

대대장은 여기에서 말을 끊고 멀리 파도가 밀려 오는 바다를 바라 보고 있었다.

병수는 눈을 크게 떴다. 대대장의 말이 심중하였을 뿐더러 백 치원이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주먹이 불끈 쥐여지고 가슴이 후드득 뛰였던 것이다.

…백 치원은 해방 전에 구미포 일대에서 세도를 쓰고 있던 미국 선교사 웰프스톤을 등에 업고 장산 반도의 배와 어장을 빼앗아 선주 노릇을 하면서 이 곳 인민들의 피땀을 짜 낸 놈이였다.

병수의 아버지는 그 놈의 배를 몰았다. 그는 오래 전부터 앓아 누운 안해와 병수를 먹여 살리려고 매일과 같이 험한 바다에 나가 고된 로동을 하였다.

그런데 병수가 열 세 살 잡혔을 때의 이른 봄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병수의 아버지는 그 날 돈 몇 푼을 더 준다는 백 치원의 말에 이제까지 해 오던 배 모는 일을 그만 두고 동발을 배에다 실어 주는 중로동을 하러 나갔었다. 걸을 맥조차 없었지만 안해와 어린 병수가 매일처럼 굶는 것을 생각할 때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일에 달라붙어 보니 일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동발을 나르기 시작하였다.

스물 다섯 번째의 동발을 지고 배다리에 올랐을 때에는 그야말로 눈앞이 새까매오고 량 다리는 가늠할 수 없이 후들후들 떨렸다. 그는 숨을 좀 돌리려고 배다리 우에 좀 멈춰 섰다.

그 때였다.

《펀펀한 녀석이 벌써부터 꾀를 부려?》 하며 백 치원이란 놈이 사정 없이 그의 어깨를 채찍으로 후려 쳤다.

《앗!》

병수의 아버지는 그만 그 무거운 동발과 함께 물 속으로 첨벙 떨어지고 말았다. 동발이 사정 없이 그의 허리를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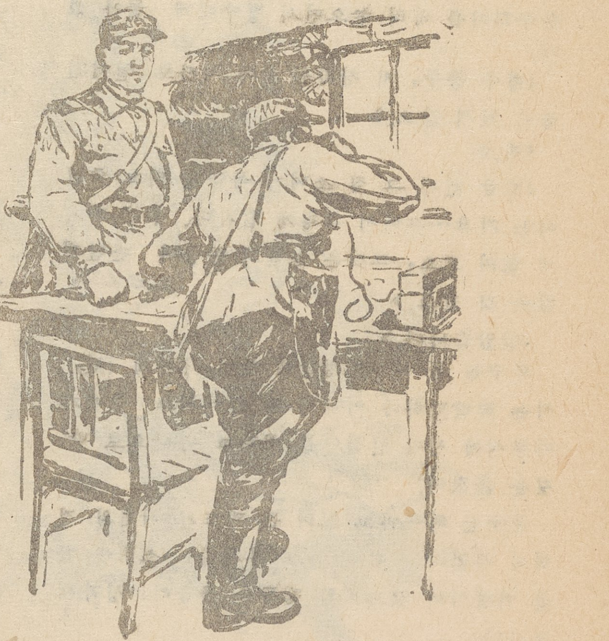
아버지가 이렇게 눈 깜박할 사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어머니도 며칠을 지내지 못 하고 눈을 감았다. 약한 첩 못 쓰는 데다 풀죽마저 먹을 수 없는 그는 더는 일어 날 수 없었다.

놈들에게 부모를 빼앗기고 홀로 남은 병수는 그 날부터 바가지 하나를 들고 이 집 저 집의 문턱을 찾아 다니지 않으면 안 되였다…

—백 치원…그 놈이…

병수는 입속말로 이렇게 외우면서 뿌드득 이를 갈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대대장이 그의 심중을 알아 차리기라도 한듯 병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으나 힘 있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부소대장 동무, 그래서 우리는 우선 놈들의 소굴을 알아 내야 하겠소. 나는 병수 동무에게 이 임무를 맡기자고 하오.》



병수는 대대장의 의도를 넉넉히 리해할 수 있었다.

《알았습니다.》

그는 힘 있게 대답하였다. 강기 있고 날파람 있어 보이는 갸름한 그의 얼굴에는 투지가 넘치고 있었다.

대대장은 병수를 책상 우에 놓인 지도에로 가까이 부르더니 장산 반도에 널려 있는 크고 작은 여러 천연굴의 위치를 짚으면서 임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전화종이 울렸다. 대대장이 송수화기를 들었다.

《예, 예, 뭐요? 창바위'골에서?… 그래서…》

전화를 받는 대대장의 얼굴은 갑자기 긴장하였다.

—또 놈들의 책동이 나타났는가?—

대대장은 전화를 다 받고도 송수화기를 그냥 든 채 무엇인가 한참 생각하다가 천천히 송수화기를 내려 놓으면서 병수에게 돌아 섰다.

《병수 동무, 저 창바위'골에 외따로 떨어진 집이 있지 않소.》

《예.》

《방금 전에 그 집 소녀가 독약을 먹고 죽었다는 거요…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우선 거기에 들려 보오, 그것은 놈들의 준동과 관련돼 있는 것 같소.》

《알았습니다.》

병수는 곧 이 번 정찰에 같이 나가게 된, 키는 작달막하나 어깨가 쩍 벌어지고 몸매가 다부지게 생긴 인철이를 데리고 부락으로 발'길을 옮겼다.

병수는 쏴—하고 밀려 든 파도가 해변의 절벽에 부딪쳐 처절썩 하고 부서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앞으로의 행동을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리당에 들려 두 사람은 부락 형편과 소녀가 죽은 그 집 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았다.

소녀는 영실이라는 열 네 살 난 그 집 딸이였다. 영실의 아버지는 놈들에게 학살 당하였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화숙이가 영실이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온 가족과 가장집물을 놈들의 폭격에 다 잃어 버린 화숙이 본가의 아버지가 이 집에 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였다.

두 사람이 화숙이네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해가 지고 써늘한 저녁 해풍이 일기 시작하였다.

병수는 만약을 생각하여 후미진 곳에 인철이를 경계로 떨구고 사립문 안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 갔다.

방안에서는 녀인의 울음 소리가 들려 왔다.

병수가 주인을 찾은 다음 이 집 로인을 따라 방안에 들어 서자 그제야 화숙이는 울음을 그치고 옷고름으로 눈물을 닦는 것이였다.

병수는 로인과 마주 앉아 담배 한 대를 권하면서 일의 자초지종을 물었다. 덤덤히 앉아 담배만 빨고 있던 로인이 기막힌 한숨을 후— 내쉰다.

《여보게 군대 어른,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소, 금방 달아 다니던 애가 그렇게 눈을 감다니…그 놈들을 그저…》

로인의 눈에서는 금시 불이 일었다.

《할아버지, 그만 진정하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로인은 병수가 다시 재촉해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이 집 사람들은 이 날도 종일 밭에 나가 일을 하였다. 해가 한 뼘쯤 남았을 때 영실이가 먼저 일'손을 털고 저녁밥을 하겠다면서 집으로 들어 갔다.

한 반 시간이 지났을가…일을 마친 로인과 화숙이가 집에 들어 서 보니 방금 밭에서 들어 온 영실이가 바가지를 든 채 방'바닥에 쓰러져 몸을 비틀고 있었다. 놀란 화숙이가 배를 그러쥐고 몸을 비트는 영실이를 그러안고 다우쳐 물었는데 그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한 모금 마셨다는 한 마디 말을 남기고 숨을 넘기고 말았다.

화숙이는 우물'가로 정신 없이 내뛰였다. 우물 주변에는 여러 개의 로동화 발'자국이 찍혀 있고 《대동문》이라는 글이 보이는 담배 꽁초가 떨어져 있었으며 그리고 우물 안에는 재'하얀 배를 뒤집은 죽은 고기 한 마리가 둥둥 떠 있었다.

《애가 독약을 먹었구나, 독약을…》

화숙이는 미친듯 집으로 뛰여 들아 와 그만 영실이를 붙안고 쓰러졌다.

병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 나 우물'가로 달려 나갔다.

우물에 나가 보니 로인의 말은 조금도 틀림 없었다.

병수는 로동화 발'자국이며 담배 꽁초를 세세히 들여다 보고 나서 주변에 서 있는 싸리 두 가지를 꺾어 물 우에 떠 있는 고기를 집어 들었다. 이 때 의외에도 가재 한 마리가 저 쪽 돌 짬에서 기여 나와 우물 속을 미끄러지듯 헤엄쳐 이 쪽 돌 짬에 와 숨는 것이 눈에 띄였다.

—?!—

병수는 막대기로 가재가 들어 간 돌 짬을 쑤셨다. 가재는 거기에서 나와 또 다른 돌 짬으로 쏜살같이 달아 난다. 그 동작은 민첩하고도 자유로왔다.

깊은 생각에 잠겨 우물 속을 들여다 보던 병수는 짚이는 데가 있어 가재를 잡아 가지고 화숙이네 집으로 돌아 섰다.

그는 곧 가재를 물'동이에 넣었다. 순간 그는 주먹을 불끈 쥐였다. 가재는 몇 걸음 헤지 못 하고 배를 뒤집으며 물 우에 뜨고 말았다. 그런즉 독약은 우물에 친 것이 아니였다. 물 길러 가기 전의 빈 동이에 발라 놓은 것이 틀림 없었다.



병수는 로인과 화숙이한테 원쑤놈들의 책동에 대해서 알아 듣게 이야기해 주고 그 집을 나섰다. 로인은 따라 나오면서 당부하는 것이였다.

《임자, 이 원쑤를 꼭 갚아 주게.》

《할아버지, 꼭 원쑤를 갚아 드리겠습니다.》

인철이와 함께 리당을 거쳐 자위대 본부로 찾아 걸어 가는 병수의 머리는 복잡하였다.

자기의 정찰 임무와 어딘가 련관이 있는듯한 이 사건의 실마리는 좀체 풀리지 않았다.

—왜 놈들이 그 소녀에게 마수를 뻗쳤을가?

병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야 그것은 단지 인민들을 해하려는 기도인 것만 같지는 않았다.

《부소대장 동무, 놈들이 왜 우물에다는 흔적만 남겨 놓고 동이에다 독약을 발랐을가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 침묵 속에 걸어가고 있던 인철이가 이렇게 말을 건늬였다.

《……》

《인민들이 우리들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와 인민들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는 술책일가요?》

《그것만이 아니지…》

《그럼 무슨 기도가 또 있을가요?》

《교활한 놈들이요, 놈들은 동무가 말한 대로 우리와 인민들 사이에 쐐기를 박으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네들만이 그 우물을 리용하려는 술책이요, 인민들이 그 우물을 리용하면 자기들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 하니까…》

병수는 어릴 적에 로인들과 같이 배를 타고 창바위'골 앞바다를 지나 가면서 《박쥐굴》을 가리키며 하던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인즉 약 360여 년 전 장산 반도에 기여 들었던 왜놈들이 인민들에게 쫓기여 갈팡질팡하다가 식량을 략탈해 가지고 그 《박쥐굴》에 들어 갔었는데 인민들은 그 굴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물 봉쇄 투쟁으로 놈들을 모조리 소멸했다는 것이였다.

—백 치원, 그 놈이 그 굴에 들어 박혀서 이 우물을 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가?—

병수는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벽에 걸어 놓은 액틀처럼 앞으로 수그러진 120여 메터의 높은 절벽의 중턱에 뚫어진 《박쥐굴》, 만조 때는 굴 입구에까지 물이 찰랑거리고 간조 때는 굴에서 아찔하게 수면이 내리앉군 하여 만조 때 배를 타고야 붙을 수 있는 아직 누구도 깊이를 알지 못 한다는 그 굴…

병수는 《박쥐굴》에 대하여 줄곧 생각하면서 자위대 본부까지 걸어 갔다.

자위대에서는 병수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병수가 어제'밤 우물 근처에서 있은 사건에 대하여 묻자 자위대장은 웬 탄피 하나를 책상우에 꺼내 놓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런데 영실이 독살 사건은 이 탄피와 어떤 련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탄피가 바로 어제'밤 그 수상한 놈이 순찰 나갔던 우리 동무들과 조우했을 때 쏘고 달아난 것인데 도움이 될가 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병수는 탄피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 보았다. 탄피는 흔히 볼 수 있는 보병총 탄피였다. 그러나 병수는 인차 그것을 놓을 수 없었다. 자세히 보니 그 탄피는 뢰관을 때린 격침자리가 알릴락말락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총의 격침 끝이 휘였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였다.

《잘 했습니다. 내 생각에도 두 사건은 련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수는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위대장과 마주 앉아 앞으로의 대책을 의논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사로청원의 의무 해설 (2)

2. 사로청원은 로동당의 모범을 따라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결사적으로 관철하며 당 정책을 일상적으로 해석 선전하고 당의 붉은 교양자가 되여야 한다.

이 조항의 기본 요구는 사로청원들이 로동당원들의 모범을 따라 당에 무한히 충실하며 자신을 공산주의 교양자로 준비하는 것이다.

조선 로동당은 조선 혁명을 령도하며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확신성 있게 인도하는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다.

조선 청년들은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결코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생각할 수 없으며 청년 운동의 발전도, 청년들의 보다 훌륭한 앞날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실지 생활을 통하여 체험하였다.

때문에 당에 무한히 충실하는 것은 사로청원의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의무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선 청년들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일하든지 항상 로동당의 령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당에 대한 충실성—이것은 우리 나라 청년 조직들과 모든 청년들의 활동에서 기본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면 당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로청원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사로청원은 무엇보다도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당'적 사상 체계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옹호하고 보위하며 당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혁명적 립장과 관점을 말한다.

바로 이러한 립장, 이러한 관점이 확고히 서 있을 때 사로청원은 실천적으로 당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이는 조선 혁명을 맑스-레닌주의 길로 확고하게 인도하는 우리의 심장이며 뇌수이며 우리 당의 령도 핵심이다. 전체 조선 인민들이 이 령도 핵심을 튼튼히 보위하며 그의 주위에 철석 같이 뭉쳐 그와 한마음 한뜻으로 사고하고 움직일 때 우리 당은 더욱 불패의 당으로 강화되며 우리의 혁명 위업은 일층 촉진된다.

그러므로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은 조선 청년들의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의무로 된다.

사로청원들은 어느 때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 당의 령도 핵심—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뭉쳐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며 일편 단심 당 중앙 위원회와 함께 숨 쉬며 행동하여야 한다.

당'적 사상 체계를 떠난 그 어떠한 생활과 행동도 사로청원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다.

당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로청원은 로동당원의 모범을 따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

당에 대한 충실성 여하는 당 정책을 대하는 태도와 그의 관철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김 일성 동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세》만 부르는 사람이 당에 충실한 것이 아니다. 만세는 안 불러도 사업을 잘 하는 사람, 자기 몸을 희생시킬지언정 당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당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적으로 관철한다는 것은 어떤 풍파와 난관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굴할 줄 모르는 불요불굴의 혁명가적 기질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이악하게 끝까지 관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맑스-레닌주의이다. 거기에는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의지,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도가 명시되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과업인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류의 최고 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울 것을 맹세하고 사로청에 들어 온 동맹원에게 있어서 당 정책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큰 투쟁 과업은 없다.

당 정책을 옹호 관철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파악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을 깊이 파악하지 못한다면 사로청원은 그 누구를 물론하고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에 충성을 다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알아야만 당의 의도 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신심이 생기고 투지와 창발적 열성이 나올 수 있다.

사로청원은 항상 당의 결정, 지시들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일상적으로 연구하여 그의 기본 사상과 본질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를 자기의 피와 살로 되게끔 하여야 한다.

우리가 당 정책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를 철저히 관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사로청원은 당 정책을 파악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일하는 사업 부문과 직장의 실정에 맞게 그를 더 잘 관철하겠는가에 대하여 머리를 쓰며 창발적 의견을 적극 제기하며 맡겨진 과업 해결에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발휘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 정책이 집행되는 행정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 걸린 고리가 있으면 호상 지혜를 모아 제때에 풀어 나가며 만일 일을 질질 끌면서 당 정책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외곡하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제때에 바로 잡기 위하여 견결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당 정책, 그것은 하면 하고 말면 말거나 오늘 못 하면 래일 하고 래일 못 하면 모레 한다는 식으로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당 정책 집행은 어느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전체 인민 대중이 한사람 같이 동원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전체 인민 대중 속에 당 정책이 제때에 들어 가야 한다. 사로청원은 이 사업에서 또한 당을 적극 방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로청원은 자신이 당 정책으로 무장하는 것은 물론 그를 군중 속에 일상적으로 해설 선전하여야 한다. 가정에 들어 가서는 부모들과 동생들에게 알려 주고 직장에 나와서는 자기 동무들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설해 주며 또 거리에서도 하고 집합 장소에 찾아 가서도 하며 직관물과 예술 작품으로써도 하는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당 정책을 해설 선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로청원은 로동당원의 모범을 따라 군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가 오늘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더욱 빨리 건설하며 조국 통일의 대사변을 준비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경제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것과 함께 전체 인민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여 정치 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고조됨에 따라 이 문제는 현 시기 특히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전 당이 이 사업에 달라붙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과업이다.

때문에 군중을 교양 개조하는 당의 붉은 교양자가 되는 것은 사로청원의 중요한 의무이다.

사로청원이 당의 붉은 교양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자신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오직 공산주의자들만이 남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로청원은 우리 당의 군중 로선과 공산주의 교양의 기본 내용과 방도를 똑똑히 파악함으로써 우리 당의 군중 교양 방침을 정확히 체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로청원은 아무리 복잡하고 뒤떨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담하게 접근하여 그들에게 계급 의식을 부단히 높여 주며, '로동을 사랑하고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존중히 여기며, 당 정책 관철을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적극 발휘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생활은 사람을 교양 개조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 모범이 커다란 감화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로청원은 출판물에 발표되는 긍정적 자료를 광범히 리용하거나 자기 직장, 자기 리, 자기 학교에 있는 모범적 사실들을 적극 찾아내여 그를 조장 발전시키며 일반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람들을 교양하는 데 있어서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참을성 있게 대하며 동지적 사랑과 성의를 가지고 교양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공산주의 학교이다. 사로청원은 자기가 일하는 모든 단위에서 천리마 작업반, 천리마 학급 칭호 쟁취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앞선 동무는 뒤진 동무를,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도와 주고 이끌어 주면서 사람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에 전 집단이 달라붙어야 한다.

이렇게 전체 사로청원들이 당의 붉은 교양자가 되여 군중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 개조할 때 우리의 대렬은 더욱 붉은 일색으로 튼튼히 꾸려지고 우리의 혁명 위업은 일층 촉진될 것이다.

청년생활 소사전

세계 수산 자원의 량

우리가 사는 지구 표면적 5억 1천만 평방 키로 메터 중 그의 70.8%가 바다인데 여기에서는 약 15만 종의 동물과 1만 여 종의 식물이 살고 있다. 그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낙지, 조개, 문어 등 연체 동물이 6만 종, 게, 새우 등 갑각류가 2만여 종, 어류가 1만 6천여 종, 해파리, 산호 등 강장 동물이 9천 종, 해삼, 삼바리 등 극피 동물이 5천 종 기타 연충류, 이끼벌레, 단세포 동물 등이 수만 종 된다.

이러한 수산 자원의 총량은 무려 6백 20억 톤 이상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해마다 사람들이 잡아 내고 있는 수산물이 어류 2천 2백만 톤, 넝에 및 고래류 2백만 톤, 갑각류와 연체 동물 1백만 톤 이상 정도인데 이것은 세계 수산 자원의 량에 비하면 극히 적은 량인 것이다. 해마다 바다의 큰 동물들이 잡아 먹는 작은 물'고기들과 연충류, 갑각류 등만도 2억 톤이나 되며 또 연체 동물, 갑각류, 작은 물'고기들이 잡아 먹는 해조류와 부유 생물만도 20억 톤이나 된다. 그런데 이것도 해마다 번식하는 량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다. 이처럼 수산 자원은 무진장하다.

열성자들을 위하여

조직 생활과 분공

민 영 섭

매개 사로청원들에게 분공을 주어 그들이 다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동맹 조직 생활의 기본 요구이다.

분공은 사로청원들로 하여금 동맹 규약 상 의무 수행에서 일정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투쟁할 수 있게 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혁명가적 자질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분공은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조직 하는가?

첫째로, 분공은 그 내용에 따라 정치적 분공과 경제적 분공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 분공이란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연구하고 혁명 과업 수행에서 모범이 되며 뒤떨어진 사람을 교양 개조하는 등의 과업을 주는 분공을 말한다. 정치적 분공은 매개 사로청원들에게 동맹 규약 상 의무로써 빠짐 없이 주어야 한다.

경제적 분공이란 당면하게 제기되는 경제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그 실행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며 어렵고 힘든 일의 선두에 서서 대중을 이끌고 나가도록 하기 위한 과업을 주는 분공을 말한다.

정치적 분공을 이러한 경제적 분공과 밀접히 결합시켜 조직하여야만 사로청원들을 당 정책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둘째로, 분공은 다양한 형식으로 조직 진행할 수 있다.

분공은 우선 분공 대상 인원에 따라 개별적 분공과 집체적 분공으로 구분된다.

개별적 분공은 개별적 사로청원들에게 과업을 주는 분공이며 집체적 분공은 사로청원들에게 동시에 같은 사업을 책임지우고 집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분공을 말한다.

한 사람의 힘으로써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과업이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개별적 분공을 조직함으로써 사로청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업들은 집체적 분공을 조직할 수 있다. 집체적 분공은 사로청원들로 하여금 혁명 과업 수행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집체적 지혜와 노력으로 극복 타개함으로써 그들 속에서 원칙적 단결을 강화하고 집단주의 사상을 배양할 수 있게 한다.

분공은 위임을 주는 기간에 따라 고정적 분공과 림시적 분공으로 구분된다.

고정적 분공은 사로청원들이 어느 한 부문의 사업을 오랜 기간 책임지고 수행하는 분공이라면 림시적 분공은 사로청원들이 그 때 그 때 림시적으로 위임을 맡아서 실행하는 분공을 말한다.

당면하게 제기된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고정적 분공과 함께 림시적 분공을 옳게 배합하여 주어야 한다.

분공에는 또한 분공 받는 사로청원들의 능력에 따라 지도적 분공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의 수양 정도에 따라 자체 수양을 위한 분공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체 수양을 위한 분공이다. 자체 수양을 위한 분공은 사로청원들에게 자신을 부단히 수양하도록 과업을 주는 분공을 말한다.

사로청원들의 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하여서는 자체 수양을 위한 분공을 옳게 조직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분공은 그 내용과 형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나 그것들은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로청원들에게 정치적 분공을 빠짐 없이 주면서 이에 경제적 분공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여러 가지 형식의 분공을 잘 배합하여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분공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첫째로, 분공은 일부 사로청원들에게 편중시킬 것이 아니라 모든 사로청원들이 움직이도록 빠짐 없이 주어야 한다.

능력 있는 일부 사로청원들에게만 분공을 편중시킨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 결국은 어느 하나도 실'속 있게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은 자기만을 《총명》한 사람으로 자처하면서 위임 분공을 걸써 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반대로 분공을 받지 못 하는 동무들은 움직이지 않게 되며 동맹 생활에서 열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둘째로, 분공은 동맹원들의 성격, 능력, 취미와 그들의 수준에 맞게 주어야 한다.

사로청 조직들은 실생활과 사업을 통하여 매개 사로청원들의 성격, 능력, 소질, 취미, 사업 조건 그리고 그들의 동맹 생활 형편과 사업 작풍, 군중의 신망 정도를 잘 알아야 하며 그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깊이 료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료해에 기초하여서만 사로청원들의 준비 정도와 성격에 맞게 분공을 조직할 수 있다.

세째로, 분공은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주어야 한다.

분공을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주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사로청원들의 창발성까지도 마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분공을 줄 때에는 사로청원들이 실행하여야 할 과업의 내용과 목적, 그 의의를 명백히 인식시키며 그 과업 실행 과정에는 어떤 애로와 난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며 어느 때부터 착수하여 어느 때까지 결속하되 그 결속은 어떻게 지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분공 받은 동무들이 그 과업 수행에서 자신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제기된 과업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네째로, 분공은 우선 단순한 것부터 주고 점차 그 요구를 높여야 한다.

분공에서 대상자들의 능력에 알맞는 것으로부터 점차 그 요구를 높이는 것은 사로청원들의 수준을 제고하고 그들을 능력 있는 일'군으로 육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로청 단체들은 동맹원들의 수준에 맞게, 목적 지향성 있게 분공을 조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한 개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점차 그 요구를 높여 새로운 분공을 조직하여야 한다.

사로청 조직들은 이상과 같이 분공을 조직한 다음에는 그 실행 정형을 알아 보고 일상적으로 지도 방조하여야 한다.

동맹원들의 분공 실행 정형을 료해하기 위

하여서는 분공 받은 동무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담화할 수도 있고 그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분공 실행 정형을 청취할 수도 있다. 또한 사로청원들의 분공 실행 정형을 료해하고 그 실행을 지도 방조하며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위원들이나 열성자들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동맹원들의 분공 실행 정형을 직접 관찰하는 과정에서도 료해할 수 있다.

사로청 조직들은 동맹원들의 분공 실행 정형을 알아 본 다음에는 그것을 정확히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만일 분공이 잘 집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 원인을 알아 보고 해당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 주어야 한다.

사로청 조직들은 이상과 같이 동맹원들의 분공 실행을 지도 방조하는 한편 그를 정확히 분석 총화하여야 한다.

분공 실행에 대한 총화를 잘 하기 위하여서는 분공 실행 행정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은 무엇인가 그리고 결함과 부족점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분석 종합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사로청 단체들은 동맹원들의 분공 실행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공고히 하고 결함과 그 원인에 따라 시정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동맹원들에 대한 료해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분공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게 된다.

분공 실행에 대한 총화는 정상적으로 하여야 하며 일이 어렵거나 장기간을 요하는 분공일 때에는 중간 총화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생활의 거울

아름다운 정신

초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자정이 지난 지도 퍽 오랬는데도 그칠 줄을 몰랐다.

중교대 작업을 끝마친 나는 비옷을 입고 종종걸음으로 집으로 돌아 오고 있었다. 내가 일하는 하성 광산 구역을 벗어 났을 때였다. 멀리서 칸드레불이 얼른거리고 거기서 망치로 정'대를 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이 밤'중에 누가 무엇을 하고 있을가?) 하는 생각이 들자 나는 그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우리 광산 분석실 사로청 분조장 고 춘자 동무였다. 그는 큼직한 괴광(철광석 덩어리)을 깨노라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는 큼직하고 무거운 괴광들을 한군데 모아 둘 수가 없어 이렇게 애를 쓰며 깨고 있는 것이였다.

그의 옆에는 이미 깨여 모아 둔 괴광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그것을 한참 바라 보던 나는 그만 코'마루가 찡해졌다. 나라에 한 그람의 철광석이라도 더 많이 보내기 위하여 그는 얼마나 애 쓰고 있는가! 이 동무야말로 나라의 참다운 살림'군이요, 애국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나는 고 춘자 동무의 일상 생활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였다.

그는 길 가다가 못 하나, 자그마한 동선 하나를 발견해도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지 않고 꼭꼭 수집해 두는 동무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모은 동이 43 키로가 되였을 때 동무들은 감탄을 금치 못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분조원들은 그의 뒤를 따라 괴광 수집에 떨쳐 나섰는데 그들은 불과 20 일도 못 되여 60 톤의 괴광을 수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나라에 근 30 톤의 철을 수집해 보낸 것과 같은 것이다.

고 춘자 동무는 오늘도 비 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괴광을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나라를 위한 그의 고매한 정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다.

통신원 김 음전

고구려의 문화

김 병 건

고구려의 문화는 고조선과 부여의 문화를 계승하여 삼 국 중에서도 가장 일찌기 발전하였다.

채광, 금속 가공, 무기 제작 등 각종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당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였다.

고구려 인민들이 이룩한 건축 기술은 오늘도 완전한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통구 지방의 장군 무덤, 룡강의 쌍영총, 강서 무덤 등 무덤들과 기타 유적들을 통하여 그의 규모와 우수성을 능히 상상할 수 있다.

기원 5 세기 경의 무덤인 평안 남도 룡강 쌍영총의 전실에 들어 가면서 왼쪽 벽에 아직도 뚜렷하게 남아 있는 기와집 지붕의 그림은 오늘 우리가 보는 평양의 부벽루나 개성의 남대문의 지붕과 같다. 금시 두루미가 홰를 치며 나는듯한 경쾌한 곡선미에 바탕을 둔 학각 지붕은 실로 뛰여 난 인민적 명공들의 놀랍고 세련된 수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지붕의 곡선은 현대 과학에서 물이 가장 잘 내릴 수 있는 리상적인 물매다.

평양 대성산 남쪽 기슭의 안학궁 지의 대건축 군과 청암동 토성 안의 금강 사지 등 고구려의 건축 유지는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방대할 뿐더러 평면 배치에 있어서도 균형이 잘 잡히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안학궁지의 대건축군은 그 규모에 있어서도 대표적이다. 길이 50 메터에 달하는 대건물들이 방형으로 정연하게 배치되여 있다. 이 건축 유지에서 발견된 당시의 기와'장들과 주추'돌은 안학궁의 규모의 웅대성과 건축 기술의 발전 수준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고구려 건축은 높은 기술적 토대 우에서 독자적인 민족적 양식을 확고히 수립하였다.

고구려 인민들은 생산 기술 분야에서도 선행한 고조선, 부여 등의 우수한 생산 기술 전통을 계승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켰다. 보습과 쟁기, 도끼, 괭이, 낫, 호미, 칼 등의 농업 생산 도구들이 종전 시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개량되였으며 광범히 리용되였다.

또한 모직, 비단, 푸른 라직, 붉은 천 등 고급 직물들을 생산하는 방직 기술과 종이의 생산도 일찍부터 시작되였다.

당시 마섬유로 만든 종이가 오늘에 와서도 눈'빛 같은 흰 색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표백술이 특출하였다는 것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수차를 제작하여 리용하였다. 이런 우수한 생산 기술들은 널리 일본에까지 전수되였다.

610년에 고구려의 승려 담징(曇徵)이 일본에 건너 가서 채색하는 방법과 함께 종이와 먹을 만드는 방법과 연애 (수차를 리용하여 돌리는 망) 를 만드는 법을 전하였다.

고구려는 또한 선행 시기의 채광 야금 기술을 계승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높은 기술 수준에 도달하였다.

청암동 토성 안에서 나온 《금동 보관형 투각 장식품》은 공예품으로서 월등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작 기술이 또한 매우 우수하다. 특히 보관의 띠는 압착 가공하여 만들었고 띠의 구멍은 프레스 절단 방법에 의해서 뚫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주위의 가는 금실은 인발한 것이 분명하며 보관에 달려 있는 구슬들은 현대적 술어로 말할 때 일정한 형의 용적 단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보관의 도금 기술도 비상한바 청동에 아마

투감 도금 (금을 수은에 녹여 도금했음) 을 하였다.

채광 야금 기술의 특출한 발전은 당시에 벌써 동북에 있는 무순 탄광을 개발하였다는 것으로도 능히 알 수 있다. 그 때에 벌써 야금 연료로서 석탄을 리용하였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다.

고구려는 농업 생산에 기초를 둔 봉건 국가로서 천문 기상 연구에 대하여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였다.

천문 기상 연구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조직 진행되였으며 일자 (日者) 라는 연구 기관까지 있었다. 일찌기 천문도 (天文圖)를 제작하여 돌에 조각하였다는 것은 천문학의 높은 발전 수준을 말하여 준다. 지리학도 일찍부터 발전되였는바 628년에는 고구려의 전국 지도인 봉역도(封域圖)를 만들었으며 지리 관계 서적도 편찬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의술도 발전되여 있었다.

예로부터 전해 오는 민간 료법을 더욱 발전시키고 약초 채취 및 침구술을 체계적으로 연구 적용하는 사업들을 국가적으로 장려하였다. 고구려에서는 금속 침을 사용하였는데 질병 치료에서 신기하리 만큼 침구술의 위력을 보여 주었다.

이 외에도 고구려 의학은 점질, 뜸과 치료 부위에 대한 수술 료법으로 되는 자락 등의 제 방법을 종합한 독자적인 의학 리론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우수한 의술은 멀리 일본에까지 전해졌다.

고구려에서는 이미 372년에 《태학 (太學)》을 세워 자제들을 가르치는 고등 교육 시설들을 확립하였으며 일정한 부서를 두고 력사 기록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이리하여 이미 건국 초기부터 기록 편찬된 100 권에 달하는 《류기 (留記)》 라는 방대한 력사 서적이 편찬되였으며 기원 600년에는 이 자료를 기초로 한 《신집 (新集)》 이라는 새로운 년대기 작품이 태학 박사 리 문진 (太學 博士 李 文眞)에 의하여 저술 편찬되였다. 이것은 력사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문학 발전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고구려에서는 문학 예술도 매우 발전되였었다.

고구려에서는 서사 산문 문학과 함께 인민들의 오랜 구전 가요의 전통과 유산에 기초한 서정 가요 작품들이 일찍부터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시 문학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발전하였다.

기원 전 17년에 고구려 제 2 대 왕 류리가 나무'가지에 모여 와 노는 꾀꼬리를 보고 안해를 생각하여 지었다는 《황조가》는 인간 내면 세계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진실하고 예술적인 형상적 언어로써 훌륭하게 그려진 한시 작품이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짝을 지어 즐기는데
외로울사 이 내 몸은
누구와 더불어 돌아 갈가

6—7 세기 경에는 5 언 형식의 한시 작품들이 번성하였는데 610년에 유명한 애국 명장 을지 문덕 장군이 수 나라 침략군의 대장 우중문 (于 仲文) 에게 써 보낸 시 작품은 매우 훌륭하다.

신기한 책략은 천문을 꿰뚫었고
기묘한 계산은 지리를 다했도다.
싸움에도 이겼고 공도 많이 세웠으니
그만히 만족하고 돌아 감이 어떠리.

만반의 반공격 태세를 갖추고 적의 퇴각을 은근히 위압조로 권고하면서 분노가 서린 이 작품에는 작가 을지 문덕 장군의 사상 감정이 잘 표현되여 있으며 최후 승리의 신심으로 가득찬 장군의 씩씩한 기상이 차 넘치고 있다.

가요와 함께 특히 설화 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되였다. 우리에게 알려진 고구려 건국 설화인 《주몽 전설》 을 비롯하여 《호동과 락랑 공주》라든가 《온달전》 과 《거북과 토끼》와 같은 설화 작품들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된다.

이 시기의 조형 예술도 우리 나라 력사 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귀중한 유산의 하나로 되고 있다.

안악 제 3 호 무덤, 강서 무덤과 다른 일련의 고구려 무덤들에서 한결같이 볼 수 있는 벽화들의 진실성과 생동성은 동방 회화의 정수로 되고 있다. 여기에는 사냥, 씨름 등을 비롯하여 일상 생활을 내용으로 한 그림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구려 시기의 생활 면모를 뚜렷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기원 4 세기 창작으로 추정되는 안악 제 3 호 무덤 벽화는 천장에 《하늘 세계》 를 상징하는 그림들과 문양들로 가득 차 있으며 4 면의 벽에는 인간 세계의 엄격한 계급적 차별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고분 중에서 가장 후기 (6—7 세기) 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강서 세 무덤의 《사신도》는 예술의 최고봉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묘사된 사신도는 그 묘사에서 다분히 양식화 된 장식적 효과를 가진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작가는 동물들이 움직이며 달릴 때 나타나는 골격과 근육의 변화들을 깊이 연구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형태를 과장하며 날개를 붙임으로써 가상적인 동물을 창조하고 있다.

강서 벽화는 동물의 배경과 흰 빛갈과 기타 색채와의 관계를 미묘하게 조절하면서 어슴프레한 연막을 뚫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 나오는 힘의 화신인듯 한 이상한 동물이 실내의 공기를 삼엄하게 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한다.

고구려의 벽화는 세계 모든 나라의 벽화들(아르타미라 동굴의 벽화, 애급, 인도의 벽화 그리고 동방으로는 중 아세아와 중국의 고대 벽화) 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자기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의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동감으로 충만된 이 독특한 벽화에는 근면하고 전투적이며 강의하고 불굴의 투쟁 정신을 가진 고구려 인민의 기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고구려의 음악과 무용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다.

《삼국사기》에는 이에 관한 풍부한 자료들이 기록되여 있다.

안악 제 3 호 무덤 벽화의 전면에는 250 명 내외의 시위 대렬이 행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절반은 악대이다. 이 악대는 각종 관현 악기와 타악기들을 연주하면서 행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고구려 음악의 찬란한 발전 모습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안악 제 3 호 무덤 벽화에서만도 13 종의 관현 악기와 타악기가 그려져 있으며 다른 벽화의 자료에 의하면 22 종의 악기들이 사용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의 가무에 17 종의 악기가 쓰이는데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 중 주가 되고 있는 것은 선률성 관현 악기이며 탄쟁, 국쟁, 와공후, 수공후, 비파, 5 현금, 의자적, 생대피리 등 다양한 악기들로 편성되고 있다.

고구려의 음악 발전에서 왕 산악 (王 山岳) 은 탁월한 업적을 남기였다. 기악 연주가이며 작곡가인 그는 거문고를 만들어 냈다. 거문고는 처음에 검은 학금 (현학금) 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왕 산악이 거문고를 연주할 때면 그 음률이 어찌도 신기하였던지 검은 학이 날아 와 너울너울 춤을 추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무용도 음악과 결부되여 크게 발전하였다. 통구 (즙안) 무용총을 비롯한 고구려 무덤 벽화에 나오는 무용도는 무용의 발전 면모를 보여 주고 있으며 《삼국사기》 에 기록된 《사인무》, 《호선무》 (胡旋舞), 《쟁무》, 《장검무》 등 무용 종목들은 이 시기 무용 발전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렇듯 우수한 고구려의 문화는 백제, 신라에는 물론이거니와 멀리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도 큰 영향을 주었다.

미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지 청 룡

훌륭한 미술 작품은 우리들에게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이며 시대와 인민의 지향은 무엇인가를 화폭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시대의 위업을 자각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열렬히 복무할 줄 아는 품성을 길러 준다. 우리가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 미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모든 미술 작품에는 풍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화가는 작품에 당해 시대의 가장 전형적이며 의의가 있는 생활 내용을 담고 그것을 자기의 작품에서 긍정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려면 우선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옳을 것이다.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꽃을 곱게 그렸다》, 《주인공의 얼굴이 예뻐서 그림이 내 마음에 든다》는 등으로 그림을 감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로동자가 일하는 것을 그렸으니 좋다든가, 어린애가 옷을 깨끗이 입었으니 현실을 정확히 반영했다는 식으로 보는 것도 내용을 옳게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작품의 내용은 도표나 안내서의 그림과 달라서 단순하게 안겨 오는 직관적인 표현만으로는 작품의 기저에 놓여 있는 심오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왜냐 하면 그림이란 이 사람은 이렇게 일하며, 백일홍의 잎은 저렇게 생겼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사람과 사물을 통하여 인간의 감정, 그의 지향과 생활의 아름다움을 긍정하고 추악한 것을 증오하는 사상을 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례를 들어 꽃을 그린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할 때 그저 꽃이 창문'가에 놓여 있는데 진짜 꽃 같이 그렸다 하는 것으로 감상을 끝낸다면 화가가 그저 꽃이 고와서 그렸다는 사실 밖에 찾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꽃이 어느 철의 꽃이며, 어떻게 피여 있으며, 창문과 그 주변으로 보아 어떤 주인공의 방이며, 창문으로 내다 보이는 풍경은 어떤 풍경이며, 어느 시각을 그렸으며, 주인은 어데 가고 꽃만 남아 있는가 등의 의문을 붙이면서 하나 하나 파고 든다면 화가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창조했으며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구도를 택하였고 어떤 색채를 쓰고 있는가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태도로 감상한다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한 그 작은 꽃송이에서 풍겨 오는 생활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흐뭇한 감정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을 옳게 감상하자면 내용을 풍부화하는 미술의 표현 형식들을 리해하고 그를 통하여 주제의 내용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술 작품은 하나의 제한된 화폭 속에서 생활의 한 순간만이 아니라 그의 천후를 보는 사람들에게 암시하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화가들은 주제 내용의 가장 고조된 계기와 장면을 취하면서 이러저러한 표현 수단들로써 그 그림에 표현된 것보다 더 많은 뜻을 보는 사람들로하여금 사색하여 찾게 한다.

이제 그림 《동이 텄다》 (박 상락, 홍 성철, 유 환기 합작)를 놓고 례를 들어 보기로 하자.

그림에는 인민군 용사들이 미제 고용병 포로들을 몰고 나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화가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많은 것을 보여 준다. 먼동이 터 오는데 유령과 같은 검은 그림자의 미제 고용병들이 려명을 등지고 무리를 지어 관중 앞으로 흘러 나와 얼굴을 돌리며 우회한다. 포연이 아직 자욱한데 안개는 차츰 걷기 시작했다. 전사들은 증오에 찬 눈으로 그들을 노려 보기도 하고 조소하기도 한다. 적 땅크도 머리를 숙였고 이곳 저곳에 널려 있는 적 무기의 잔해들은 매우 험상하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지난 밤에 본 때 있게 미제가 녹아났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조국의 고지를 피로써 지켜 싸운 인민군 용사들의 모습을 화면 속에서 찾아 보게 된다. 화가는 가렬했던 전투의 장면을 직접 그리지 않고도 그것을 관중들에게 훌륭히 느끼게 하였으며 우리 인민군 용사들의 영웅성과 고용병들의 처참한 말로를 웅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고용병들의 부차적 형상을 통하여 인민 군대의 영웅성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푸른 색 조화로 이루어진 새벽의 찬 공기는 이글이글 끓는 인민군 용사들의 전투적 정열과 대조되면서 랑만적 기분이 넘쳐 흐르게 한다. 이런 것들은 작품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걸어 온 길, 걸어 갈 길, 우리의 길은 승리의 한 길 뿐이며 미제가 이 땅에 남아 있는 한 총을 놓을 수 없다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게 한다.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기로 하자.

중앙 미술 박물관에 들리면 조각배 우에 배'사공 한 사람이 누워 있고 갈'대 몇 대가 그려 있는 리 인문(1745~1821)작 《배'사공》 이라는 그림을 보게 될 것이다. 얼핏 보면 그림이 매우 간결하고 아무런 사건도 없으며 내용이란 보잘것 없는듯 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서 감상하노라면 실로 놀랄만 하게 풍부한 생활의 진실이 이 그림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이 그림 속에 담겨진 생활의 진리를 찾아 보기로 하자.

어둠이 숨어 든다. 먼 곳은 이미 보이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갈'대들만이 뚜렷이 보인다. 갈'대는 시원한 저녁 바람에 설레인다. 주위는 매우 고요하고 어데선가 벌레들만이 찌르륵 찌르륵 소리를 내는 것 같다. 강'기슭에 매여 있는 조각배도 잔잔한 물'결에 따라 넘실거린다. 하루 종일 나루터에서 오가는 손님들을 나르던 사공도 일'손을 놓고 배 우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숨어 드는 어둠도 아랑곳하지 않고 로동의 희열을 느끼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노래'가락이라도 나올듯 하다. 로동으로 마디진 그의 드러난 다리, 호탕한 그의 옷 차림과 자세, 그리고 사람이 무척 좋을 상 싶은 그의 얼굴이 우리 민족의 근면성과 고상한 인간성과 근로하는 사람들의 풍부한 내면 세계를 얼마나 뚜렷이 드러내 놓았는가! 바로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이렇게 락천적으로 호탕하고 소박하게 살아 왔던 것이다.

그림을 감상함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림 속에서 울려 나오는 음악적 흐름을 들을 줄 아는 것이다.

그림 속에 흐르고 있는 음향은 작품의 전반적 분위기와 주인공의 뚜렷한 성격적, 심리적 특징들을 밝혀 주며 그림에 형상화된 모든 것을 하나의 통일적 선률에 잡아 넣음으로써

직관적인 조형 예술의 형상을 더욱 풍부히 하며 정황과 전형적 환경들을 뚜렷이 하여 준다.

유화《전쟁이 끝난 강선 땅에서》(길 진섭, 최 창식, 송 찬형, 장 혁태 작)를 례로 들어 보자.

포연이 가시지 않은 강선 땅에 수상님이 찾아 오시여 로동자들과 함께 국사를 의논 하신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미제를 때려 이긴 영웅들이며 승리자이다. 소란한 전쟁의 폭음이 사라진 강선은 너무나도 조용하다. 오직 우렁우렁한 수령의 목소리만 들려 온다. 로동자들은 수령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놓칠세라 가슴을 울렁거리며 듣고 있다. 왜 울렁거리는가? 화가는 이 격동된 마음을 대교향곡과 같은 큰 음악적 흐름으로 더욱 고조시키며 밝혀 주고 있다. 미제의 야만적 폭격으로 상처를 입은 제강소는 여름의 더운 하늘의 푸른 색조와 대조되면서 굴하지 않는 조선 인민의 투쟁을 상징하듯 하늘에 치솟아 있으며 그 속에선 해'별을 받은 전기로들이 력사의 증견자인냥 자기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다. 가냘픈 어린 백양나무도 상처를 가시여 새 싹을 내 뻗고 있다. 이로부터 울려 오는 음향은 로동자들의 격동된 마음과 더불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국사를 토의하시는 인민의 수령과 그의 전사—로동자들간의 떼여 놓을 수 없는 혈연적 련계를 보여 주고 있다.

18 세기의 위대한 화가 김 홍도의《야장'간》이라는 그림을 하나 더 보기로 하자. 이 그림에서는 명랑하고 맑은 음향들이 끊임 없이 흘러 나온다. 집게로 빨갛게 단 쇠'덩이를 집고 늙은 야장'군이 두 젊은이를 지휘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허리를 휘청거리며 궁둥이를 뒤로 빼고 쇠망치를 휘휘 두르며 뚝딱뚝딱 내리 치고 있다. 그들의 망치가 모루를 내려 칠 때마다 늙은 야장'군은 손에 힘을 주느라고 입을 실룩거린다. 그 뒤에 푸르륵푸르륵 풀무질을 하는 총각도 젊은 야장'군에게 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푸르락거린다. 그런가 하면 한구석에서 열심히 낫을 싹싹 갈고 있는 어린 총각도 있다. 그림에 그려진 이런 형상을 통하여 야장'간에서 울려 나오는 이러저러한 음향들은 하나로 뭉치여 명랑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추수를 앞두고 분주한 야장'간의 노래를 듣는듯 싶다.

다음으로 작품 감상에서 대상에 대한 물질적인 질감의 표현에 대하여 잘 보아야 한다. 왜냐 하면 그림에서 물질적인 질감은 작품의 생동성과 진실성을 뚜렷이 하며 인간의 생활이나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질적 차이에서 오는 느낌을 명확하게 하여 줌으로써 주어진 내용을 더욱 뚜렷이 밝혀 주는 조형 예술의 중요한 표현 수단의 하나로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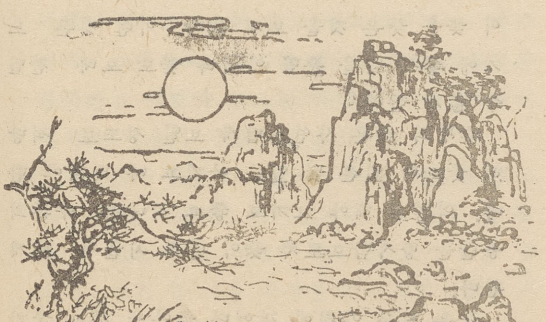
19 세기 말 우리 나라의 화가 조 석진의《잉어》를 보자. 크고 작은 10 마리의 잉어 떼가 우리 앞을 스쳐 지나 가는데 반짝거리는 비늘과 빳빳한 꼬리, 가볍고 미끄러운듯 한 탐스러운 잉어들은 먹음직하기 짝이 없다. 뿐만 아니라 물 속에 스며 드는 해'빛을 받고 무지개 색으로 비치는 잉어 떼의 묘사는 우리 나라의 맑은 하늘과 강물을 그 대로 보여 줌으로써 끝 없는 정서가 그림에 넘쳐 흐르게 한다.

작품 감상에서 전체와 부분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떤 그림들은 매우 미세하게 부분을 처리한 것도 있으며 반대로 대담하게 생략한 그림들도 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사실주의 예술은 세부의 진실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세부의 진실성과 세부를 미세하게 그린다는 것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 사실주의 예술에서 세부의 진실성은 자연을 거울에 비친 것과 같은 기계적인 복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부가 화면 속에서 어떤 역할을 놀며 어떻게 기본 사상을 돕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그의 진실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생략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옳은 생략인지 아닌지를 전체 화면의 통일 속에서 보아야 한다. 때문에 그림을 감상할 때 미세한 그림의 부분에 감탄하거나 또는 큰 필치에 찬사를 보내기 전에 그것이 작품의 기본 내용과 어떻게 통일되여 있는가를 잘 보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미술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서는 이 밖에도 민족적 형식에 대한 문제라든가 현대성의 구현에 대한 문제, 소묘나 구도 색감에 대한 문제 등 고려하여야 할 문제가 많겠지만 마지막으로 화가의 필치에 대한 문제만을 더 언급하기로 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론쟁들이 많다.)

훌륭한 필치는 세련된 가수의 목소리와도 같다. 힘 있게 한 번 붓을 놀린 것이 마치도 살아 있는듯 움직이며 광채와 힘을 내 뿜을 때 관중은 예술의 세계로 끌려 들어 가나, 붓을 바들바들 떨며 그린 그림 앞에서는 화가의 고심에 동정만을 보내게 된다. 필치가 세련되지 못 한 것으로 하여 좋은 구상과 내용을 가지고도 관중을 경탄시키지 못 하는 수가 종종 있다. 다만 여기에서 류의해야 할 것은 매개 가수의 목소리에 자기의 고유한 특성이 있듯이 매개 화가들도 그에게 특징적인 필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필치가 더 좋은 것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개 화가의 필치가 예술성 제고에 어떻게 적극적인 역할을 노는가를 전반적 화면 구성과 함께 감상하여야 한다.



남조선 앞뒤'골목

《계획》이냐, 요술이냐.

최근 괴뢰 정부 농림부에서는《식량 증산 7 개년 계획 수정안》이라는 것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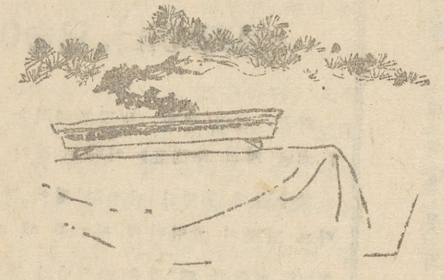
굶주림에 뒤덮인 남조선 땅에 당장 쌀 사태라도 날듯이 요란하게 광고를 해 오던《본 계획》은 며칠간 해'별을 쪼이다가 휴지통에 처넣고 련달아 수정안을 내놓는 그들의 변덕도 변덕이지만 이 번 수정안의 내용이 또한 희한하기 이를 데 없다.

새로 내놓은 수정안에 의하면 서해안 간석지 개간으로 얼마, 재해 방지 대책으로 얼마, 집약 농법으로 얼마 등등으로 식량을 증산하여 7 년 후에는 4천 몇백만 73 석을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닭알을 사서 병아리를 깨워 가지고 닭을 쳐서 알을 받고 또 그것을 깨워서 기와집 쓰고 살겠다던 뚝배기 장사의 주먹 구구나 같은 것이다.

7 년 뒤의 일은 고사하고 래일을 기약할 수조차 없는 한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위인들이 7 개년 계획을 운운하는 것이나 7 년 후의 생산량을 73이라는 우수리까지 붙여 산출해 낸 것이나 모두가 해괴 망칙하기가 짝이 없는 엉뚱한 짓이다.

박 정희가 언제 그렇게 신통한 점쟁이나 요술쟁이가 되였는지는 몰라도 점이나 요술로는 기울어진 신세를 바로 잡을 수도, 곡식을 땅속에서 불러낼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꽃병과 화분



박 춘 희

우리 청년들 치고 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원에 활짝 핀 가지각색의 꽃들이며 아빠트 창'가에 알뜰히 가꾸어 놓은 아름다운 화분 꽃들과 꽃병들…이것들은 얼마나 우리들의 생활을 즐겁게 하며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여 주는가!

우리 청년들이 특히 꽃을 사랑하는 것은 꽃자체가 아름다운 데도 있겠지만 더우기는 이 아름다운 꽃들이 나날이 피여 나는 우리들의 행복한 생활 그 대로를 느끼게 하며 또 그 활짝 핀 꽃들처럼 더욱 휘황해질 래일을 그려 보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그 어느 가정이나 합숙, 직장엘 가든지 우리는 알뜰히 가꾼 꽃밭이며 화분, 꽃병들을 보게 된다.

꽃병과 화분 꽃을 잘 가꾸는 것은 문화 혁명의 시기에 사는 우리 청년들의 응당한 품성으로 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꽃병과 화분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우선 꽃병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꽃병에 꽂는 꽃은 대체로 줄기나 잎이 너무 조잡하지 않은 것으로서 색이 선명하고 아름다우며 꽃이 비교적 오래 가는 것이여야 한다.

례를 들면 구라지오라스, 장미, 다리야, 들국화, 나리, 백합, 수선, 쥬립브, 선자, 무자, 미인국, 천일홍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꽃들도 막 꺾어다 꽂으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꽃병의 색갈이나 모양이 꽃의 색이나 생긴 모양과 잘 어울려야 한다. 가령 꽃병의 색이 진한데다가 꽃 색도 진한 것을 꽂는다든가, 줄기와 잎이 긴 꽃을 목이 짧고 키가 낮은 둥근 꽃병에 꽂는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분을 손상시키게 한다. 꽃과 꽃병의 색은 서로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즉 꽃병의 색이 연한 경우에는 꽃의 색이 진한 것이 좋으며 반대로 꽃병의 색이 진할 경우에는 꽃의 색은 연한 것이 좋다.

또한 꽃은 꽃병의 생김새와도 잘 어울려야 한다. 줄기가 긴 화초들(구라지오라스 같은 것)은 꽃병의 목이 긴 것과 어울리며 장미꽃같이 줄기가 짧은 꽃들은 키가 나지막한 꽃병에 꽂아야 더 아름답게 보인다.

우리는 종종 꽃병 목이 터져라 하고 빽빽이 꽃을 꽂은 것을 보게 된다. 이런 것은 보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꽃도 오래 견딜 수 없게 한다.

꽃병의 꽃은 자연스럽게 보일 정도로 적당히 꽂으며 잎은 몇 잎만 남기고 따 버려야 한다. 이렇게 해야 보기도 좋고 지나친 수분의 증발을 방지함으로써 꽃이 빨리 시들지 않게 된다.

꽃은 이른 아침에 꺾어다 꽂아야 하며 줄기의 밑동을 칼로 경사지게 잘라 주는 것이 좋다. 꽃병의 물은 매일 신선한 것으로 갈아 주며 물을 갈아 줄 때마다 줄기의 밑동을 0.5cm 정도씩 잘라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꽃병은 반드시 그늘진 곳에 놓아야 한다. 그래야 싱싱한 꽃을 오래 동안 보존할 수 있다.

꽃병을 겨울 철에 가꿀 때에는 주로 꽃보다 열매나 화초의 잎이 아름다운 미인국이나 천일홍, 뽈인쎄치야 등을 택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가정들에서 흔히 많이 기르는 화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하자.

화분 꽃을 가꾸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꽃의 종류를 잘 선택하는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식물의 생활에서 빛, 온도, 습도, 공기 등 주위 생활 조건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초를 선택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요인들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 즉 실내 조건에서 잘 자라며 가꾸기에 품이 적게 들고 보기 좋은 것을 택하여야 한다. 가꾸기가 쉽고 환경 조건이 불리해도 잘 자라는 꽃들로서는 유선화, 선인장, 꽃배진너야, 재라늄, 화석류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화초들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화분을 놓을 방의 크기와 꽃의 모양을 고려하여야 한다. 작은 방안에 키가 크고 아지가 많이 뻗은 파초나 고무나무, 유선화, 몬스테라 등을 가꾼다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화초라고 하여도 거치장스러운 물건으로 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화초들은 박물관, 극장, 학교, 식당 등의 넓은 홀이나 정문, 가정들에서는 응접실과 같은 큰 방안에나 적합한 것이다. 작은 방을 장식하는 데는 넝쿨져 올라 가는 식물이나 넝쿨이 져 드리우는 식물(아스파라크스, 딸라깨비, 고계우스, 현애국 등)을 벽에 화분대를 설치하고 매달아 놓으면 자리를 적게 차지하면서도 대단히 아름답게 보인다.

방안에서 화분 꽃을 놓기 제일 적합한 장소로서는 창'가이다. 여기에서는 해'빛을 잘 받을 수 있으며 또 신선한 공기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창'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쉽게 가며 접촉도 쉽다. 그렇다고 화분 꽃을 창'가에만 배치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가정에서는 아빠트 창문턱이 내려 앉을 정도로 화분들을 빽빽이 놓는데 이것은 도리여 보기 흉하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하여도 창문을 자유롭게 여닫아 실내를 위생적으로 거두는 데 방해가 되여서는 안 된다.

창'가에 화분을 놓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류의하여야 한다.

우선 창'가에는 크고 아지가 많이 뻗은 화초들은 놓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방안에 빛이 들어 오는 것과 신선한 바람이 통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창'가에는 지나치게 화초들을 빽빽이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화초들이 자유롭게 자랄 수 없게 하며 화초의 줄기, 잎 등이 빽빽이 뒤섞여 보기에 조잡하고 아름답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초가 유리에 닿지 않게 하여야 한다. 화초의 줄기와 잎들이 유리에 닿으면 여름에는 태양광선에 의하여 유리에 닿은 부분이 타 버릴 수 있으며 겨울에는 동상을 입을 수 있고 또 유리에 맺히는 물'방울 때문에 썩을 수 있다.

창'가가 아니더라도 화분은 화분대나 책장 등을 리용하여 놓을 수 있는바 이것은 창'가에 놓은 것 보다 더 편리하고 방안을 아름답게 한다.

그러면 화분 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화분은 토기로 만든 것이 가장 좋다. 토기로 만든 화분들은 식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뿌리에 잘 통과시키므로 화초의 발육에 좋은 조건을 지어 주며 병충해에 잘 걸리지 않게 한다.

화분의 밑은 항상 물이 잘 빠질 수 있어야 한다. 물은 큰 잎을 가진 화초일수록 더 많이 주어야 한다.

선인장류들은 지나치게 물을 많이 주면 썩어 버리기 때문에 적게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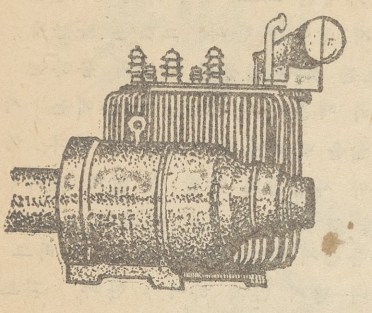
꽃을 관상하는 식물들은 꽃이 피기 직전과 꽃이 핀 직후에 특별히 물을 많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꽃망울이 떨어진다.

물은 아침과 저녁 때에 주되 조로를 사용하여 물이 꽃에 닿지 않게 직접 흙에 주어야 한다.

그리고 물은 조금씩 자주 주는 것보다 드물게 주어도 충분히 주는 것이 좋다.

화분에 주는 물은 직접 수도관에서 나오는 찬물을 쓸 것이 아니라 하루'밤 동안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이 잘 찾아 들지 않는 화분은 몇 시간 동안 물에 담구어 밑으로부터 물이 올라 오게끔 하면 된다.

전기와 우리 생활



중요한 전기 기계의 구조와 원리

김 규 섭

전기 기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계적 에네르기를 전기적 에네르기로, 혹은 전기적 에네르기를 기계적 에네르기로 변화시키는 기계들을 가리켜 말한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기 기계를 로써는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등을 들 수 있다.

발 전 기

발전기는 기계적 에네르기를 전기 에네르기로 변화시키는 전기 기계다. 즉 수차 또는 증기 타빈, 발동기 등 원동기에서 전달되는 기계적 힘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동력 기계이다.

전호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발전기의 원리는 자기 마당 내에서 자력선을 끊으며 운동하는 도선에 기전력이 생긴다는 전자기 유도 법칙에 기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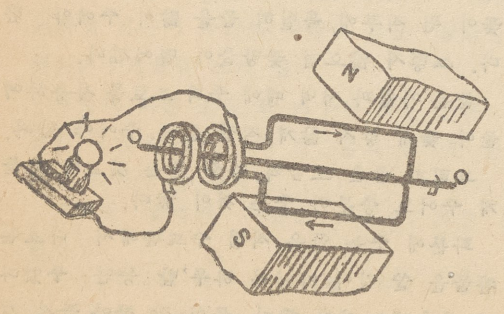


그림 1. 간단한 단상 교류 발전기.

발전기에는 직류 발전기와 교류 발전기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3상 교류 비동기 발전기이다.

그러면 교류 발전기의 구조는 어떠한가?

발전기는 크게 나누어 자기 마당 즉 자력선을 만드는 부분과 전기가 발생되는 도선 (발전기에서는 전기자 권선이라고 한다.) 부분으로 되여 있는데 이것이 고정자와 회전자에 배치되여 있다. 고정자란 발전기의 고정되여 있는 부분을 말하며 회전자란 축에 장치되여 회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제 그림 1과 같은 장치를 통해서 교류 전류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보자. 두 개의 자극 N극과 S극 사이에는 자기 마당이 형성되며 자력선이 분포되게 되는데 이 자기 마당 속에서 도선 틀을 회전시키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회전하는 도선 틀에는 하나의 교류 기전력—단상 교류가 발생하게 된다. 단상 교류는 자기 마당 내에서 회전 운동을 하는 하나의 도선 (권선)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만일 하나의 권선 대신 공간적으로 위치가 각각 120도 되게 배치한 세 개의 권선을 회전시키면 세 개의 교류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3상 교류 발전기의 작용 원리이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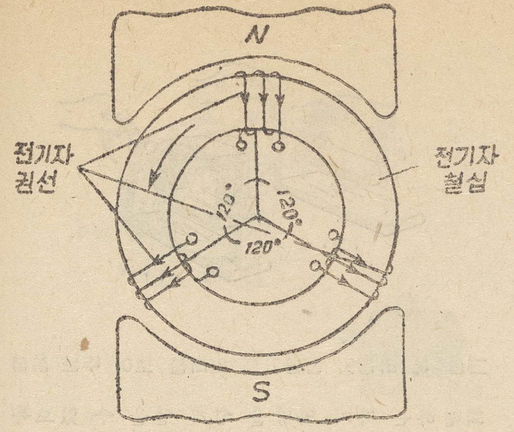


그림 2. 3상 교류 발전기의 구조 원리.

그런데 실제의 큰 발전소들에서는 대부분 자석이 회전하고 전기자 권선이 고정자에 배치된 회전 자계형 3상 교류 동기 발전기를 사용한다. 발전기를 회전 자계형으로 하면 기술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한바 보통 발전기에 비하여 그 구조가 간단해지며 따라서 발전기 대당 능력이 수십만 키로 와트시나 되는 대형 발전기를 만들 수 있으며 운전에서도 신뢰성이 높다. 그러므로 발전소들에서 쓰는 능력이 큰 발전기들은 대부분 회전 자계형으로 한다.

이런 발전기의 자극은 강한 자기 마당을 만들어야 하므로 보통 전자석으로 한다. 그러므로 회전자는 자극 철심과 려자 권선 (철심을 자화하기 위한 권선)으로 되여 있다. 려자 권선에는 직류를 공급한다.

회전 자계형 발전기의 고정자는 철심과 전기자 권선으로 되여 있다. 철심은 발전기 내부에서 와류에 의한 전력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 얇은 전기 강판으로 만들었으며 전기자 권선은 공간적으로 120도 되게 세 곳에 배치되여 있는데 이를 3상 권선이라고 한다.

매 권선은 철심과 철저히 절연하여야 한다.

변 압 기

변압기는 어떤 교류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사용하는 전기 기계이다.

전력을 공급하며 사용하는 데서 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가?

같은 전력을 송전할 때에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흐르는 전류가 작아져 전력의 도중 손실이 감소되며 또 전선도 더 가는 것을 쓸 수 있게 되므로 많은 전선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높은 전압으로 고쳐서 보내고 그것을 받아 쓸 때에는 쓰기 편리하게 다시 전압을 낮춘다. 이처럼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변압기가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변압기의 구조는 어떠한가?

변압기는 얇은 규소 강판을 겹겹이 쌓아 만든 철심과 그 우에 감은 서로 련결되지 않은 두 개의 권선으로 되여 있다.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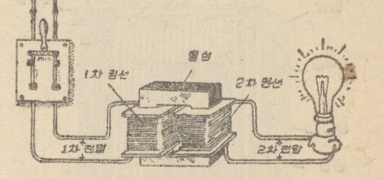


그림 3. 변압기의 구조 원리.

권선 호상 간 및 권선과 철선 사이는 절연되여 있다. 두 권선 중 전류가 흘러 들어 오는 쪽 권선을 1 차 권선이라고 하며 전류가 흘러 나가는 쪽 권선을 2 차 권선이라고 한다.

1 차 권선에 교류가 흐르면 철심이 자화되여 철심 내에는 교류와 같이 1 초 동안에 60 번씩 방향을 바꾸는 자력선이 생긴다. 이 교변 자력선은 1 차 권선과 함께 2 차 권선도 동시에 관통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2 차 권선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하여 전력이 생기게 된다. 2 차 권선에 생기는 전압 (2 차 전압)의 크기는 2 차 권선의 감은 회수를 1 차 권선보다 몇 배 더 많이 혹은 적게 감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두 권선의 감은 회수가 같다면 1 차 전압과 2 차 전압은 같아지며 2 차 권선을 1 차 권선보다 2 배, 3 배 더 감았다면 전압도 2 배, 3 배로 높아지게 된다.

변압기는 권선을 감는 회수를 많게 하거나 적게 함으로써 전압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변압기를 통과하는 전력은 변동시키지 못 한다.

예를 들면 2 차 권선의 권회수를 2 배로 높일 때 전압은 2 배로 높아지지만 반대로 흐르는 전류의 량 (전기의 세기)은 전압이 높아진 비률로 즉 2분의 1로 작아지는 것이다.

전압을 높이는 변압기를 승압 변압기라고 하며 전압을 낮추는 변압기를 강압 변압기라고 한다. 변압기에는 단상 변압기와 3상 변압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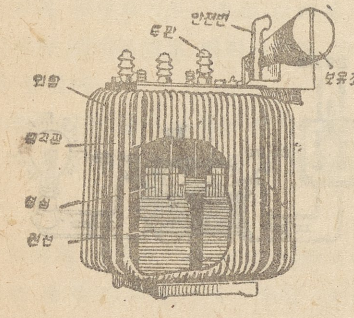


그림 4. 대형 변압기.

전 동 기

전동기는 전기 에네르기를 기계적 에네르기로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전동기는 크게 전류의 종류에 따라 교류 전동기와 직류 전동기로 나누며 교류 전동기는 또한 동기 전동기와 유도 (비동기) 전동기로 나눈다.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3상 비동기 (유도) 전동기이다. 그것은 유도 전동기가 구조가 간단하여 만들기 쉽고 값이 싸며 운전하기 편리하고 또 고장이 적은 것 등 많은 우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동기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치의 작용을 고찰하여 보자.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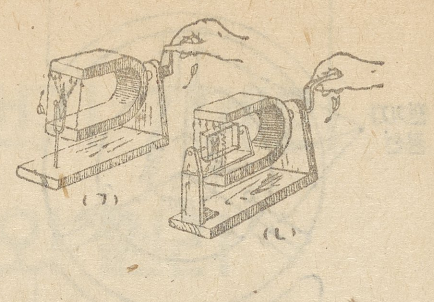


그림 5. 비동기 전동기의 원리를 보여 주는 실험

회전하는 자기 마당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말굽 자석을 한쪽 축에 고정시킨다. 그리고 그 자기 마당 속에다 자침을 넣고 자석을 돌리면 자침은 자석을 따라 자석과 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림 5—ㄱ) 다음이 회전하는 자기 마당 속에 자침 대신 축에 고정시킨 도선 틀을 넣는다. (그림 5—ㄴ) 그러면 도선 틀을 관통하는 자력선이 변하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하여 도선 틀에는 감응 전류가 흐르게 되며 이 전류는 회전하는 자기 마당과 작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도선 틀은 자석을 따라 돌아 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비동기 전동기가 돌아 가는 원리이다.

삼상 유도 전동기는 두 부분 즉 고정되여 있는 부분인 고정자와 회전하는 부분인 회전자로 되여 있는데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하는 자기 마당은 자석을 회전시키는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정자에 공간적으로 120도 되게 배치한 3 개의 권선에 흐르는 3상 교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림 6).

고정자에 배치된 세 개의 권선은 철심의 홈 안에 분포되여 감겨 있다.

비동기 전동기의 회전자에는 롱형 회전자와 권선형 회전자가 있다. 롱형 회전자는 홈 안에 각이 진 동 막대기를 하나씩 끼우고 량쪽을 두 개의 가락지로 련결하거나 또는 알미늄을 부어 넣어서 만든다. 권선형 회전자는 회전자의 철심 홈에 권선을 여러 회 감는다.

비동기 전동기는 많은 면에서 우월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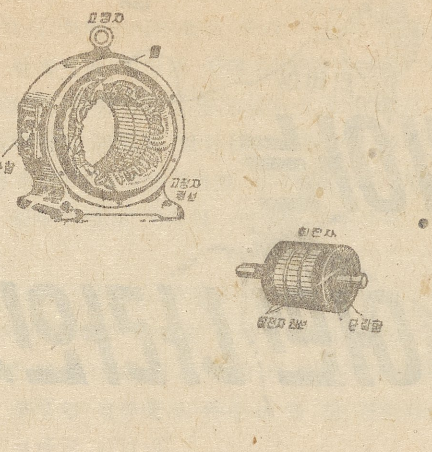


그림 6. 롱형 비동기 전동기의 구조.

무효 전력 (일을 하지 않고 전원과 부하 사이를 오가며 도중 손실을 증가시키는 전력)이 많이 소비되고 시동할 때에 힘이 약하며 속도 조정이 곤난한 것 등 일련의 결함이 있다.

동기 전동기는 부하의 크기에는 관계 없이 항상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이다. 능률도 좋고 무효 전력도 적게 들지만 기동 과정 및 설비가 복잡하여 운영하기 불편하다. 그러므로 용량이 크고 일정한 속도로 운전되는 대용량의 양수 펌프, 공기 압축기 등에 주로 쓰인다.

직류 전동기는 직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 및 복권 전동기 등으로 나누는데 직권 전동기는 전차나 전기 기관차 등 돌아 가기 시작할 때 큰 힘이 걸리는 기계들에서 쓰인다. 그리고 분권 전동기는 부하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관계 없이 속도가 일정하므로 가장 널리 쓰인다. 복권 전동기는 이 두 전동기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전동기이다.

☆

청년생활 소사전

얼마나 깊은 바다 밑까지에 낮과 밤의 차이가 있을가?

수면에 비쳐진 해'빛은 바다'물 속으로 들어 가면서 점차 물에 흡수되게 되는데 붉은 색과 살색은 100 m, 누런 색과 록색은 300 m, 청색과 남색 및 보라 색은 500~600 m 깊이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므로 바다 밑으로 내려 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누런 황금 빛 속에 휩싸였다가 다음에는 초록색의 세계에 들어 가게 되며 180 m 깊이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진하고 맑은 청색으로만 보이게 된다. 여기서부터는 벌써 글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 진다.

300 m 깊이에서 바다'물은 흑청색 혹은 흑회색을 이루며 더 깊어지면 검어진다. 1,000 m의 깊이에서는 바다'물이 먹물보다 더 까맣게 보이며 영원히 낮을 모르는 암흑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정 정

8 호 54 페지의 그림 № 5와 № 6은 서로 바뀌여진 것이므로 정정함.

☆



알제리아는 어떤 나라인가

류 금 자

세계 지도를 펼치면 아프리카주의 북단 지중해에 면한 곳에 알제리아라는 큰 나라가 있다. 알제리아는 모로코, 아우리타니아, 말리, 나이제르, 리비아, 튜니샤 등 독립 국가들과 아직 식민지로 남아 있는 서반아령 사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알제리아의 면적은 불란서의 4 배에 달하는 220만 평방 키로 메터이다. 인구는 1천 100만 명이며 주민의 대부분은 베벨족과 아랍족이다.

알제리아는 참으로 풍요한 나라이다. 연연 1천 여 키로 메터에 달하는 지중해 해안 일대에 펼쳐진 천연 옥토에는 포도, 밀, 면화 등 농작물이 잘 자라며 령토의 86%를 차지하는 사하라 사막에는 석유, 철, 금강석, 우라늄, 망간 등 귀중한 지하 자원들이 풍부히 매장되고 있다.

이 나라는 자연이 아름답고 자원이 풍부할뿐만 아니라 2천 년이란 유구한 력사를 가진 고대 국가이다. 기원 전 3 세기에 베벨족의 왕국이 건립되였는데 그 때 벌써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업을 발전시켜 불란서에 농산물을 수출하였으며 차관까지 제공해 주었다. 이 시기 문화도 상당히 발전하였다. 오랑, 콘스탄틴 등 오늘의 대도시들에는 아직도 당시의 훌륭한 건축물들이 남아 있다.

굴욕의 한 세기

15~16 세기 경부터 알제리아에는 서반아, 토이기 등 외래 식민주의자들의 마수가 뻗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830년에는 불란서가 소위《부채 사건》(알제리아의 왕 후세인이 1827년 어느날 33년 간이나 끌어 온 빚을 갚지 않겠다고 말하는 불란서 총령사를 부채로 후려 갈겼다.)을 구실로 삼아 알제리아에 대한 침략 전쟁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불란서는 알제리아 인민의 강력한 반항에 봉착하여 70 년이 지난 1905년에야 겨우 알제리아를 강점할 수 있었다.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강점 첫날부터 알제리아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알제리아 농경지의 3분의 2를 략탈하고 광산, 은행, 상업의 전부와 대외 무역과 가공 공업의 90%를 장악하였다. 이리하여 알제리아 인민은 장구한 기간 억압과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게 되였으며 수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설사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은 구라파인에 비하여 수배나 더 적어서 그들은 입에 풀칠조차 겨우 하는 형편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심한 영양 부족으로 생명을 잃었으며 살'길을 찾아 국외로 떠났다. 알제리아 인민은 배움의 길을 완전히 빼앗겼었다. 인구의 80%가 문맹자였으며 학령 아동의 90%가 학교에 가지 못 하였다.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특히 민족적 독립을 위한 알제리아 인민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1945년 5월 콘스탄틴시에서 인민들의 애국적인 시위가 있었을 때 불란서 경찰은 단 하루 동안에 4만 5천여 명의 애국적 인민들을 학살하였고 6천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알제리아 인민은 이렇듯 횡포한 불란서 식민주의자들과의 투쟁을 통하여 식민주의의 굴욕에서 벗어 나는 길은 손에 무장을 들고 발톱까지 무장한 원수들과 싸우는 한 길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손에 무기를 들고

알제리아 인민은 불란서 침략자들이 기여든 첫날부터 그들을 반대하는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알제리아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특히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식민지 체계가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고 사회주의 진영이 장성 강화됨에 따라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이 치렬한 투쟁 과정에서 알제리아《민족 해방 전선》이 형성되였으며 그의 지도 하에 민족 해방군이 조직되였다. 민족 해방군은 오레스산을 근거지로 하여 비밀리에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다. 이리하여 1954년 11월 1일 3천 명의 애국 투사들은 무장 투쟁의 첫 봉화를 들었다. 이 홰'불은 료원의 불'길마냥 알제리아의 전 지역을 휩쓸었다.

로동자, 농민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직된 알제리아 민족 해방군은 창건된지 불과 4 년이 지난 1959년에는 15만을 헤아리는 강력한 전투 력량으로 장성되였으며 명활한 유격 전술로 불란서 침략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한편 불란서 식민주의자들도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 하에 알제리아 인민을 반대하는 무력 침공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불란서 침략자들과 미제의 그 어떠한 책동도 알제리아 인민의 투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민족 해방 전쟁의 불'길 속에서 1958년에 알제리아 공화국이 선포되고 알제리아 민족 해방 전선이 지도하는 림시 정부가 수립되였다. 특히 알제리아 민족 해방군은 1959년과 1961년에 《산'새도 넘나들 수 없다》고 호언 장담하던 놈들의 《모리스 방선》과 《쏠 방선》을 돌파하였으며 령토의 3분의 2를 해방하였다. 또한 적 통치 구역 내 인민들도 지하에서 강점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다.

이렇듯 알제리아 인민의 용감한 투쟁과 세계 사회 여론의 강력한 규탄 앞에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하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1962년 3월 18일 정화 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알제리아 인민의 승리는 아프리카 각국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의 훌륭한 모범으로 되였다.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서

불란서 제국주의와의 간고한 무장 투쟁을 통하여 승리를 쟁취한 알제리아는 1962년 7월 5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독립 후 알제리아 인민은 중첩되는 난관을 극복하면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쟁취한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들에게》라는 원칙 하에 농업 개혁을 실시하였다. 모든 외국인들의 토지를 국유화할 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으며 지주의 토지를 제한하고 있다. 국유화된 농장들은 민족 해방 투쟁에서 단련된 간부들을 핵심으로 꾸려진 《관리 위원회》의 지도 하에 농민들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

알제리아 인민은 국내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시급히 타개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 증가를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다. 그리하여 작년에 알제리아 인민은 50년 래의 대풍작을 거두었다.

이것은 《알제리아가 불란서 없이 살아 갈 수 없다》던 침략자들의 신화를 산산이 부셔

버리고 독립한 인민의 위력을 시위한 것으로 된다.

공업 분야에서도 알제리아 정부는 외국인들의 각종 기업소와 상업망을 국유화하고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며 새 공장을 건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인민의 수중에 장악된 공장들에서는 점차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10~15년 간의 민족 공업 창설의(자립적인 경제 건설의 기본으로 되는)전망을 내세우고 많은 새 공업 기업소들을 창설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재정, 금융, 대외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화폐 개혁을 실시하였다.

알제리아 정부는 교육 문화 부문에도 심중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학생 교원수는 독립 전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되였다. 알지에 종합대학을 비롯한 4 개의 대학과 수천 개의 중소학교가 있다. 정부의 교육 개혁에 의하여 교육의 《아랍화》와 민주화가 실시되였고 문맹 퇴치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기적인 몽매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 늙은이, 젊은이, 남성, 녀성 할것 없이 모두가 문맹 퇴치만에 망라되였다.

알제리아 인민은 독립 후 2 년 간에 식민지 오물을 쓸어 버리기 위한 투쟁에서 실로 큰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온 나라에 새로운 기상이 나래치고 있다.

알제리아는 대외적으로 블럭 불가담 정책과 적극적인 중립, 평화 애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반제 반식민주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 친선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 나라는 민족적 독립을 위한 알제리아 인민의 간고한 무장 투쟁 시기로부터 시종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와 알제리아 간에는 대사급의 외교 관계가 설정되고 있으며 정부 대표단을 포함한 여러 대표단들을 호상 교환하고 있다. 알제리아 인민은 조선 인민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오늘 알제리아 인민은 미제를 비롯한 신구 식민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교활한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면서 그들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고 있다.

청년생활 소사전

대양의 나이는 얼마인가?

지구 상에 처음 물 웅덩이가 생긴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5 억년 전인데 이 때의 물 웅덩이들은 지금의 바다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 퍽 후에야 생겼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대양인 태평양은 제일 먼저 생긴 대양으로서 약 1 억년 전에 생겨 났는바 현재의 모양을 가지게 된 것은 3000만년 전으로 추측된다.

태평양이 생기던 때에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브라질이 대륙으로 서로 련결되여 있었는데 그 후 이 지역이 침강되면서 현재의 대서양이 생겨나게 되였다.

인도양 지역도 3000만 년 전까지는 아프리카, 오스트랄리아, 인도, 브라질 등과 련결되였던 륙지였는데 후에 지각이 변동되면서 인도양을 형성하였다.

우리 나라 주변 바다들은 비교적 《새로운 바다》들이다. 7000 만년 전까지만도 륙지로서 단지 동해 일부 지역에 약간 짠물이 있는 큰 호수들이 있었다. 대략 100만년 전후에 와서야 오늘의 바다가 생겼다.

바다도 숨을 쉰다

바다'물도 그 속에 포함되여 있는 공기가 많으면 내뿜고 적으면 빨아 들이는데 흥미 있는 것은 주로 산소를 빨아 들이고 탄산 가스를 내뿜는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다도 숨을 쉰다고 할 수 있다.

바다'물에는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산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가스들이 녹아 있는데 이것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기 중의 산소나 질소 등과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부족되는 것은 흡수하고 남는 것은 내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바다에 사는 동물들은 산소를 흡수하고 탄산 가스를 내보내기 때문에 바다'물에 포함된 산소의 량이 부족하게 되여 공기 중으로부터 빨아 들이게 된다. 특히 밤에는 바다 식물들까지 산소를 흡수하고 탄산 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바다의 《호흡》 작용은 활발해진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호흡》작용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봄 여름 철에는 산소를 공기 중에 내뿜고 가을 겨울 철에는 산소를 공기 중에서 빨아 들인다.

벽소설

산삼



문 성보

가을이 왔다. 오직 한 빛갈로 푸르기만 하던 산과 들은 여러 가지 색갈로 몸치장들을 하였다. 하남산의 깊은 숲도 울긋불긋 해졌다.

인복이는 아침 일찌기 산 열매를 따려고 하남산 줄기를 타고 올랐다. 산을 낀 이 마을에서는 요즈음 산과실 채집이 한창인 것이다.

회색 작업복에 흰 로동화를 받쳐 신은 그는 뒤'잔등에 포대짝 하나를 든든히 걸머지였다.

금년 3월에 초중을 졸업하고 농산반에서 일하는 그는 아직도 애티가 가시지 않았다.

소나무며 참나무가 꽉 들어찬 어득어득한 수림 속을 지나자 좀 훤한 묵정밭이 나타났다. 두 팔을 휘휘 저어 가며 산으로 오르던 인복은 갑자기 우뚝 멈추어 섰다.

글쎄 이런 별 일이 어데 있단 말인가! 그의 갸름한 얼굴엔 놀라움과 기쁨이 거의 한꺼번에 얽혔다.

(아니 이게 산삼이 아닌가!)

쌀알처럼 생긴 빨간 열매가 맺혀 있는 풀이 앞에서 호느적이고 있었던 것이다.

초중 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운 일이 있는 산삼, 아니 그보다도 몇 해 전 동생 인덕이를 먹이노라고 아버지가 앓까지 붙은 산삼을 구해 온 것을 보지 않았는가.

《틀림 없이 산삼이야》

이리저리 유심히 살펴 보던 인복이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산중의 희귀한 약을 발견한 그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잠시 후 그는 박달나무 꼬챙이를 뾰족하게 깎아 가지고 산삼을 캐기 시작하였다. 마당자리만큼 훤히 닦아 놓고 잔뿌리 하나 다칠세라 조심스레 흙을 파제끼기 시작하였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 하실가?)

인복에겐 올해 아홉 살 난 동생 인덕이가 있었다. 세 살 때엔가 산삼 한 뿌리를 구해 먹였는데 어머니는 두고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삼은 두 뿌릴 먹여야 효과가 있다는데…한 뿌릴 더 구해 먹여야 먼저 먹은 삼독을 깨워 준다는구나)

그래 산삼을 한 뿌리 더 구해 먹이려고 별러 오던 차에 오늘 이런 복을 얻어 만난 것이다.

산삼을 캔 인복은 저만큼 떨어져 있는 벼랑우에 기여 올라 가 더지더지 일어나는 바위 이끼를 떠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산삼을 정성껏 쌌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슴에 안고 마을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풀밭에 내던진 포대짝이며 다랭이도 깜박 잊은 채….

그가 한달음으로 마을에 들어 섰을 때였다.

《어데 갔다 오냐?》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쳐다보니 덕칠 아저씨였다.

《아 아저씨 어델 가세요?》

인복이는 싱글벙글거리며 물었다.

《군엘 간다. 거기 약국에 좋은 보약이 왔다 해서…》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며 지팽이를 짚으며 다시 저편으로 걸어 가기 시작하였다. 인복이는 차츰 멀어지는 그에게 시선을 보낸 채 움직일 줄 몰랐다. 그의 머리 속엔 복잡한 생각이 맴돌았다.

덕칠 아저씨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 때 용감히 싸우다가 부상 당한 영예 군인이였다. 그는 영예 군인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시 병이 도져서 요즈음 고향 마을에 와서 몸을 보양하고 있는 중이였다.

(이 산삼을 저 아저씨에게 드리면 어떨가? 인덕에게야 차츰 구해 먹여도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인복이의 머리 속에 떠올랐던 것이다.

(아저씨는 조국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싸웠다. 만일 아저씨들이 그렇게 싸우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의 행복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영예 군인들을 결코 말로만 존경해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다.

(모처럼 구해 온 것인데…글쎄 이게 어떻게 구한 게라구. 그리구 어머니가 섭섭해 하시지나 않을가!)

그러나 결국 인복이는 산삼을 그 영예 군인 아저씨에게 드리리라고 결심하였다. 아예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은 행결 기뻤다.

…인복이가 산삼을 캐 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쫙 퍼졌다.

《야 거 인복이가 횡재했구나.》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은 꾸역꾸역 모여 들었다. 인복이는 어머니에게 산삼을 영예 군인 아저씨에게 드리자고 말씀 드렸다. 그 때 인복이는 얼마나 열렬히 그리고 감동에 차서 말하는지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해 있었다.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그걸 누가 마다하겠니? 어서 그러려무나》

…저녁에 인복이는 그 산삼을 안고 나는듯이 덕칠 아저씨를 찾아 갔다.

《아저씨 이 산삼을 받으세요.》

덕칠 아저씨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아니 이게 웬 삼이냐?》

인복이는 자기가 산삼을 얻은 이야기를 자상하게 했다.

《그런걸 내가 받으면 되겠냐? 어서 도로 가져 가라!》

《아녜요. 이건 꼭 아저씨가 잡수어야 해요. 그래서 빨리 몸이 나아서 더 많은 일을 하셔야 해요.》

덕칠 아저씨는 그만 더는 말을 못 하고 인복이를 와락 자기의 넓은 품에 그러안았다.

(필자. 신평군 남천 협동 농장 사로청원)

(시)

이 자랑 끝 없어라

엄 병 화

청춘의 기백이런듯
무섭게 끓틀거리는 무쇠 바가지에
암갈색 쇠'돌이 드듬뿍 안기는 순간
한량 없는 기쁨에 가슴은 부풀어라

기술 학교 나와 로동의 문'고리 틀어 잡고
처음 굴착기의 발판 우에 올라 섰을 땐
큰 힘 꽉 찬 너의 웅글은 동음에
어쩔 바를 몰라 몸을 움츠리던 해'내기더니.

꼬박 한 해를 하루가 달리
보람찬 로력으로 굳은 살을 박으며
정력을 부어 기능을 자래워서인가

갓스를 헐기에 기운 좋게 운전'대를 당기면
만 사람이 보란듯이
네 날 번쩍 들어 광벽에 박아
광석산을 단참에 헐어 내련듯.

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냐
이제는 나의 팔, 다리
나의 몸'뎅이의 한 부분인듯

하기에 집채 만 한 거물도 내 뜻 대로다.
시간을 재여 광맥을 들이 칠 때면
들끓는 가슴 속은 활끈
억년 묻혔던 보화가 내 솜씨에 솟구쳐 나는걸.

순간 얼마나 많은 자랑
내 높뛰는 숨'결 속에 하냥 끝 없이 커가는가
진정 굴착기와 나 서로의 맥박은
꿈'결에도 따로는 고동친 적 없어
항시 내 마음은 자신에 넘치거니

나도 오늘은 어엿한 천리마 굴착기 운전공
꺼질 줄 모르는 붉은 마음으로
복된 청춘의 가슴을 기쁨으로 채워 가며
이 땅을 보화로 살찌우는
당의 광부된 자랑 끝없어라.

(필자—하성 광산 채광 직장 운전공)

(시)

나의 포전 앞에서

문 기 홍

꽹가리, 북 소리 둥둥 울리며
무연한 앞 벌로 나가던 작업반원들,]
문득 나의 포전 앞에서 걸음 멈췄네
저마다 대견한듯 왕이삭 매만지며…
과분한 칭찬 한바탕 나에게 보내며…

나의 관리 포전이 제일 잘 됐다고
기술 학교 졸업생이 아무래도 다르다고
어서 말해 달라누나 포전 관리 경험을
어서 배워 달라누나 선진 영농 방법을.

이런 때 어떻게 말했으면 좋으랴
자랑찬 졸업증을 가슴에 안고
정다운 고향으로 달려 온 지 1 년,
아, 어린 나에게 무슨 좋은 경험 있으랴만
그래도 반원들은 나를 에워싸누나

기술 학습 마치고 돌아 오는 길에도,
때로 오밤중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자리 차고 일어나 논'고를 보살피며
한철을 물닭처럼 포전에서 지냈고

이슬채는 새벽, 달 뜨는 저녁마다
덧거름 한 짐씩 뿌려 주던 일,
틈을 타서 산란집을 만들어
논 머리에 꽂아 놓고 나비 벌레 잡던 일…

그렇다,
내 1 년을 하루 같이
남 몰래 정성 들인 보람은 꽃피여
이렇듯 충성의 열매 무르익었거니
아,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여!

내 언제나 이런 기쁨 속에 살리라
청춘의 붉은 꿈을 여기서 키우며
생활의 나날을 이렇게 수놓으며…
(필자—운전군 덕암 협동 농장 사로청원)



달리기 운동

함 철 린

달리기 운동은 체육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종목의 하나이다.

달리기 운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몸이 조화 있게 균형적으로 발달되며 신체의 내장 기관들이 튼튼해진다. 또한 관절들의 가동성과 근육의 탄력성이 부단히 높아진다. 따라서 힘, 인내성, 속도, 교치성 등 체질의 개별적인 요소들이 정상적으로 발전한다. 달리기 운동을 하면 심장의 용적이 커지고 그의 기능이 부단히 높아져서 각 기관들에 더 많은 혈액을 보내게 한다.

달리기 운동은 호흡기 계통에도 큰 영향을 준다. 달리기를 할 때에는 호흡 운동이 왕성해진다. 즉 안정할 때는 페를 통하여 1 분간에 5~6 리터의 공기가 드나든다면 달리기를 할 때에는 1 분간에 20~25 리터 또는 그 이상의 공기가 드나든다.

이것은 우리의 체내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나쁜 가스를 제때에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 준다.

달리기 운동은 신경 계통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정신 로동을 하거나 하루 종일 육체의 어느 한 부분만을 놀려 일을 하면 신경 세포가 피로해지면서 대뇌 활동에 장애가 생기고 주의력이 약화된다. 그러나 이런 때에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달리기 운동을 하면 정신적인 피로가 완전히 회복된다.

달리기 운동은 다른 운동처럼 복잡한 기구가 없이도 아무 때, 아무 장소에서나 년령과 성별에 관계 없이 혼자서던가 집단적으로 할 수 있기에 좋다.

그러면 달리기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달리기 운동은 사철 어느 때나 하루도 빠짐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달리기는 거리와 주로를 고정시키지 말고 신체의 적응 정도에 따라 수시로 변화시켜야 한다. 달리기를 시작한 초기에는 운동장과 평탄한 도로를 약 500—800 메터 정도 달리며 점차 달리는 데 숙련되면 운동장의 범위를 벗어나 구배와 경사가 비교적 심한 도로 혹은 언덕길을 약 1,000~2,000 메터 정도까지 달리는 것이 좋다. 거리와 주로를 변경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여야 한다.

달리기 운동을 하기 전에는 인민 보건 체조 혹은 천리마 체조를 1 회 정도 하고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을 많이 놀리는 다리 운동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준비 운동을 하고 천천히 달리기 시작하여 점차 육체 부담을 주는 방향에서 빨리 달리며 끝날 무렵에는 다시 부담을 낮추어 천천히 달려야 한다.

달리기 운동이 다 끝난 다음에는 무릎을 높이 들고 제자리 걷기를 하면서 숨쉬기 운동과 함께 팔, 다리, 등, 배 운동을 간단히 하여야 한다.

또한 달리는 동안 속도를 자주 변화시켜 인내성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즉 달리는 거리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어떤 구간은 빨리, 어떤 구간은 천천히 달려야 한다. 그리하여 점차 빨리 달리는 구간을 길게 하며 천천히 달리는 구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다.

달리기 운동에서 류의할 점은 호흡 조절과 집단적으로 달릴 때 속도의 조절이다. 호흡은 반드시 코로 하되 중단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또 률동적으로, 깊게 하여야 한다. 집단적으로 달릴 때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키가 작은 동무들을 앞에 세우고 발을 맞추어 씩씩하게 달려야 한다. 남녀 청년들이 한꺼번에 달릴 때에는 녀동무들을 대렬 가운데 세우는 것이 좋다.

달리기 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저고리를 벗고 달려야 하며 달리는 도중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8 차 올림픽 대회

김 휘

일본에서 열리는 제 18 차 올림픽 대회는 오는 10월 10일 개막되여 24일에 페막된다.

각국 선수들은 륙상, 체조, 수영, 조정, 요트, 까노에, 자전거, 력기, 레스링, 권투, 유술, 경마, 축구, 롱구, 배구, 수구, 지상 호케이, 검술, 현대 5 종 경기 및 사격 등 20 개 종목에 걸쳐 패권을 다루게 된다.

배구는 금년 1월 인스브룩크에서 진행한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 61 차 총회에서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 결정되여 도꾜 올림픽 대회의 요강에 처음으로 포함된 종목이다.

남자 배구 경기에는 10 개 팀이, 녀자 경기에는 6 개 팀이 선발되였다. 아세아 지역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우리 나라 녀자 배구는 파란, 쏘련, 일본, 루마니야, 미국팀들과 각각 대전한다. 순위는 련맹전에 의하여 결정한다.

우리 나라 팀을 비롯해서 세계 강팀들이 참가하는 축구 경기는 이번 대회에서 큰 관심을 집중시키는 종목이다. 이 경기는 4 개조로 갈라서 조 련맹전을 진행한다. 1 개 조에는 4 개 팀이 속한다. 각 조 련맹전에서는 성적이 좋은 두 팀이 승자 련맹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즉 승자 련맹전에는 8 개 팀이 올라 가는바 경기 방법은 1 조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올라 간 팀과 2 조에서 두 번째 성적으로 올라 간 팀 간에, 2 조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올라 간 팀과 1 조에서 두 번째 성적으로 올라 간 팀 등등으로 맞붙는다.

승자 련맹전에서 한 번 이기면 4 위 이상을 결정하는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얻으며 지는 경우에는 5위 이하를 결정하는 경기에 떨어진다.

축구 경기는 국립 경기장, 오사까, 교도 등 8 개 경기장에서 11 일부터 매일 오후 2시에 시작한다. 1, 2, 3 위 결정전은 23 일에 진행한다.

아세아 지역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우리 나라 축구팀은 조별 련맹전에서 웽그리야, 모로코, 유고슬라비야팀과 대전하게 된다.

녀자 롱구 경기는 아직 올림픽 종목에 들어 있지 않다. 남자팀은 14 개 팀이 이미 선발되였는데 나머지 두 팀은 대회 직전에 일본 요꼬하마에서 선발한다. 이 경기에 우리 나라 선수들은 참가한다.

륙상 경기에는 매 종목에서 제정된 기준 기록을 돌파한 3 명의 선수만을 참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참가할 것을 희망하는 나라에 기준 기록 돌파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준 기록과

는 관계 없이 매 종목에 1 명씩 참가시킬 수 있다.

녀자 400 메터 결승은 17일 오후 3시 40 분에, 800 메터 결승은 20일 오후 3시 30 분에 진행할 것이 예견된다. 금년도에 들어 와서 이 종목들에서 수립된 세계 기록들을 보면 우리 나라 신 금단 선수의 기록보다 3 초 내지 5 초 가량 떨어지고 있는바 800 메터에서는 금년에 2 분 3 초 8의 기록을 두 번 세운 불란서 선수가 새로운 경쟁자로 나타났다.

마라손과 경보 (빨리 걷기)에는 매개 나라에서 조건부 없이 3 명씩 파견할 수 있다.

마라손은 21일 오후 1 시에 시작한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주로가 좋기 때문에 놀라운 기록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이 마라손 주로에서 난 최고 기록은 2시간 15분 15초 8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기록은 2 시간 13분 55 초이다.

물론 마라손 기록은 지리적 및 기후적 조건에 따라 차가 심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록을 가지고 우승자를 속단할 수는 없다.

마라손은 제 1 차 올림픽 대회부터 진행되였는바 그 때의 기록은 2 시간 58 분 50 초였다. 그 후 17 차 대회까지 이 기록은 43분 33 초 8이나 줄어 들었다.

제 7 차 대회까지는 마라손 거리가 수최국에 따라 매번 달랐으나 8 차 대회 (1924년)부터 42, 195 키로 메터로 통일하였다.

지난 마라손 경기들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선수들의 입상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금번 대회에서도 마라손 패권은 이 지역 선수들이 쟁취할 것으로 보인다.

사격에는 한 나라에서 매 종목에 2 명씩 도합 12 명을 참가시킬 수 있으며 력기는 기준 기록을 돌파하는 선수들을 7 개 종목에서 1 명씩 파견할 수 있는바 50여 명의 우리 나라 선수들이 이 기록을 릉가하고 있다.

권투 경기는 고라꾸엔 청년 회관에서 하는바 3~4 위를 결정하는 경기는 21일 오후에, 1~2 위를 결정하는 결승전은 23일 오후에 각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의 가르침 대로 평소에 땀을 많이 흘려 기술과 투지를 기른 우리 나라 선수들은 금번 대회에서 조선 청년의 본때를 보이고 돌아 올 것이다.

우리 나라 올림픽 축구단과 대전할 팀들과 경기 일정

△ 10월 11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 유고슬라비야

△ 10월 13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 웽그리야

△ 10월 15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 모로코

우리 나라 올림픽 녀자 배구단과 대전할 팀들과 경기일정

△ 10월 11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 파란

△ 10월 12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 쏘련

△ 10월 14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 일본

△ 10월 1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 루마니야

△ 10월 21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 미국

청년 생활 제 9 호 (루계 180)

편집 위원회

발행소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출판사

주 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9월 4일 발행 1964년 9월 9일

ㄱ—430486 값 45 전



노을 비낀 만경봉

저 자 강 효순

판 형 국 판 페 지 3 6 2 페지

《노을 비낀 만경봉》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작품이나.

이 작품은 1924년 이른 봄 동북 지방(팔도구)에 계시던 어린 원수님께서 공부를 하시기 위하여 조선으로 나오시는데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듬해 봄 아버지의 병이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동북으로 들어 가실 때까지를 취급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은 원수님의 창덕 학교 시절을 취급한 작품이다.

작품에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학습에서의 진지한 태도, 웃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집단과 동지에 대한 사랑, 정의를 사랑하고 부정을 미워하는 정신과 혁명적 락관주의, 풍만한 인간성 등 어린 시절의 수령의 탁월한 풍모가 감명 깊게 형상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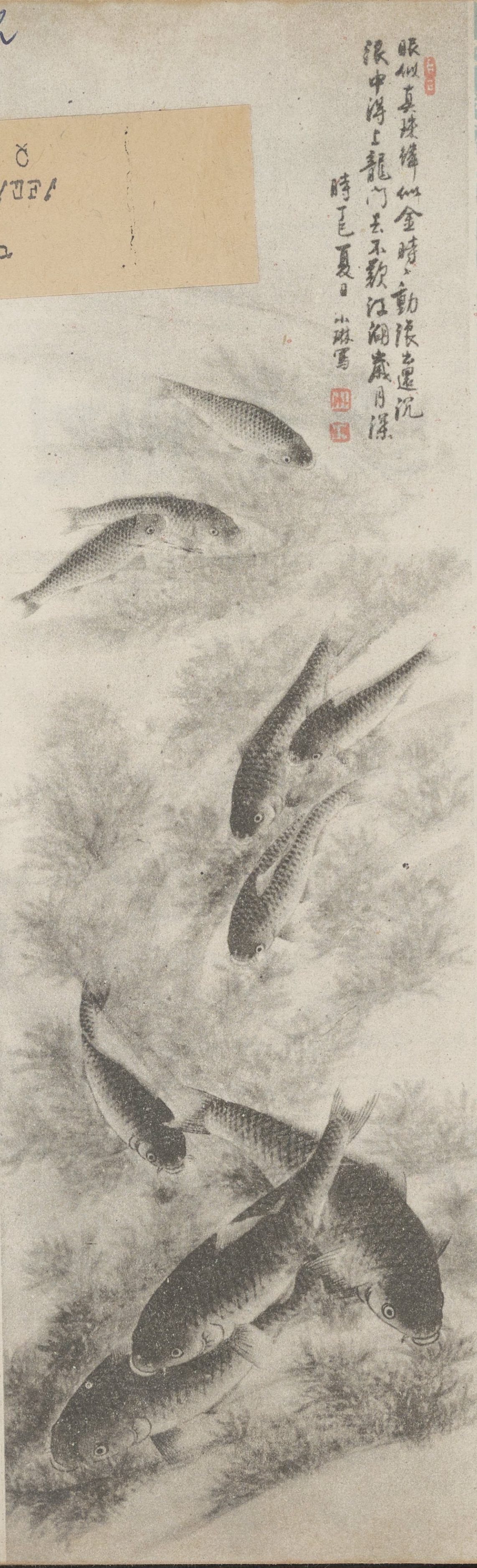
이 작품은 수령을 따라 배우는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수양의 교과서이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출판사 발행

1964년

(정기 간행물)
번호 제 13653호

Life of Youth



《잉어》 (조선화)

소림(小琳) 조 석진(趙錫晉 1853~1921)은 선행한 우리 나라의 동물화의 사실주의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대표적인 동물 화가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일생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특히 물고기와 새들을 많이 그렸는 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가 《잉어》이다.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능숙한 필치로 그린 그의 화폭들은 매우 생동하다. 이 《잉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을 그리지 않아도 물 속에서 노는 잉어들의 그 운동감과 질감은 아주 진실하다. 생활을 사랑하는 조선 인민들의 심정을 높은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표현한 그의 작품들은 우리 민족 문화의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